

강진청자의
고류와 소동

강진청자박물관 학술총서 15

강진청자의
모류와 소동

발간사

「강진청자의 교류와 소통」 특별전을 열며

고려청자, 그 천년의 예술 혼이 살아있는 이곳 강진에서 대한민국 대표축제인 제40회 강진청자축제와 강진청자박물관 개관 1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강진청자의 교류와 소통」특별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특별전은 강진청자축제의 개막일인 7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0일 동안 강진청자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립니다.

고려시대 유일한 왕실 관요가 위치했던 강진과 인근의 해남, 부안지역에서 생산된 고려청자를 모두 만나 볼 수 있게 됩니다.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물 15점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소장유물 20점 등 대여유물 35점과 강진청자박물관 자체 소장유물 21점 등 모두 56점을 선보입니다.

이번 특별전은 9세기경부터 14세기까지 500여 년간 강진에서 생산된 고려청자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태안 대섬, 군산 십이동파도 등의 해저에서 출토된 유물을 고려청자의 본향인 강진에서 직접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강진청자박물관에서 국보와 보물급 고려청자에 아로새겨진 창조적 예술 혼을 한자리에서 느껴 보시기 바라며, 이번 특별전을 통해 고려인들이 향유했던 문화를 이해하고 서로 교류하고 소통했던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귀중한 소장품을 흔쾌히 대여해 주신 국립광주박물관 조현중 관장님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성낙준 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이번 특별전을 열심히 준비해주신 민족문화유산연구원 한성욱 원장님과 강진청자박물관 관계자 모두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12년 7월
강진군수 강진원

Publication Remark

Opening special exhibition 「Exchange and Communication through Gangjin Celadon」

Gangjin, embracing artistic spirits of the 1000 year history of Goryeo Celadon, is hosting the 40th Gangjin Celadon Festival, which is one of the most famous festivals in Korea, and a special exhibition called 「Exchange and Communication through Gangjin Celadon」 to celebrate the Gangjin Celadon Museum's 15th anniversary. This year's exhibition will last for 60 days starting from 28 July, which is the opening day of the Gangjin Celadon Festival, until 30 September, at the Exhibition Hall of the Gangjin Celadon Museum.

You can now meet every single Goryeo Celadon produced in Gangjin in which the one and only royal kiln used in the Goryeo Dynasty was once located, as well as the ones made in the neighbouring county of Haenam and the area around Buan. A total of 56 artifacts will be displayed: 35 loaned artifacts including 15 artifacts own by the Gwangju National Museum and 20 artifacts owned by the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Maritime Cultural Heritage, as well as 21 artifacts owned by the Gangjin Celadon Museum itself.

This special exhibition was prepared to promote the outstanding characteristics of Goryeo Celadons produced in Ganjin for 500 years from the 9th century up until the 14th century, and to provide a chance to directly compare the artifacts excavated from deep-ocean sites near Dae Island at Taean, Sipidongpado at Gunsan with Goryeo Celadons made in Gangjin.

We hope visitors can feel the creative and artistic spirits etched onto the national treasure-level and treasure-level Goryeo Celadons at the Gangjin Celadon Museum, and have a precious opportunity to grasp the culture of the Goryeo era and discover traces of the exchanges and communications made between Goryeo people.

Lastly, we would like to express our gratitude to Hyun-jong Jho, the director of the Gwangju National Museum, and Nak-jun Seong, the head of the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Maritime Cultural Heritage who have gladly lent their artifacts for our exhibition, and Seong-uk Han, the director of the National Culture and Legacy Research Institute and all the other staff members at the Gangjin Celadon Museum who have put their heart and soul into this special exhibition.

July. 2012.
Gangjin Mayor, Gang Jinwon

發刊の辭

「康津青磁の交流と疎通」特別展を開いて

高麗青磁、千年の芸術の魂が生きているここ康津で大韓民国の代表的な祭りである第40回康津青磁祭りと康津青磁博物館開館15周年を記念するために「康津青磁の交流と疎通」特別展を設けました。今回の特別展は今年康津青磁祭りの開幕日である7月28日から9月30日までの約60日間、康津青磁博物館企画展示室で開かれます。

高麗時代、唯一の王室官窯が位置した康津と近隣の海南、扶安地域で生産された高麗青磁を一緒に見ることができます。国立光州博物館で所蔵している遺物15点と国立海洋文化財研究所所蔵遺物20点など貸与遺物35点と康津青磁博物館の所蔵遺物21点など全56点を披露します。

今回の特別展は9世紀頃から14世紀まで500年間余り康津で生産された高麗青磁の優秀性を広く知らせて、泰安竹島、群山十二東波島などの海底から出土した遺物を高麗青磁の故郷である康津で直接比べて見ることができる機会を提供するために設けました。

康津青磁博物館で国宝と宝物級の高麗青磁に刻み込まれた創造的な芸術魂を一ヶ所で感じられることを願い、今回の特別展を通じて高麗人が享有した文化を理解し、互いに交流して疎通した痕跡を見つけることができる大切な機会になるように願います。

最後に貴重な所蔵品を快く貸与してくださった国立光州博物館チョ・ヒョンジョン館長と国立海洋文化財研究所ソン・ナクチュン所長に心より感謝申し上げ、合わせて今回の特別展を熱心に準備してくださった民族文化遺産研究院ハン・ソンウク院長と康津青磁博物館関係者の皆様にも心より感謝申し上げます。

2012年 7月

康津郡守 姜 珍 遠

致辭

举行「康津青瓷的交流与沟通」特别展致辞

为庆祝韩国具有代表性的庆典第40届康津青瓷庆典、纪念康津青瓷博物馆开馆15周年，在高丽青瓷一千年的艺术魂永生的康津举办本次「康津青瓷的交流与沟通」特别展。本次特别展将从康津青瓷庆典开幕日7月28日至9月30日，在康津青瓷博物馆策划展览室举行。

通过本次特别展，我们能观赏到高丽时代唯一设立王室官窑的康津和附近的海南、扶安地区烧制出的高丽青瓷。本次活动将要展示国立光州博物馆收藏的文物15件、国立海洋文化遗产研究所收藏的文物20件等出借的文物35件和康津青瓷博物馆收藏的文物21件等共56件。

本次特别展将宣传约9世纪~14世纪500年间康津烧制的高丽青瓷的优秀性。并且还能看到在泰安竹岛、群山十二东波岛等岛的海底出土的文物，为大家提供在康津亲眼观赏、进行比较的机会。

希望大家在康津青瓷博物馆观赏到国宝和珍贵的高丽青瓷上蕴含的创造性艺术魂，通过本次特别展还能理解高丽人享有的文化，寻找他们交流与沟通的留痕。

最后真心感谢出借珍贵文物的国立光州博物馆赵贤钟馆长和国立海洋文化遗产研究所成乐俊所长，同时也要感谢准备本次特别展的民族文化遺産研究院韩盛旭院长和康津青瓷博物馆相关人员。

2012年 7月

康津郡守 姜 珍 远

유물대여

국립광주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전시

총괄 신상식 강진청자박물관 관장
기획 조정인 전시운영 팀장, 이재연 학예연구사
전시 조정인, 이재연

도록

본문 한성욱 민족문화유산연구원 원장, 이재연
표지서체 윤병진 대전 서예대전 초대작가
사진촬영 조성진 터 스튜디오
김광섭 K 아트 스튜디오
사진제공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국립목포대학교 박물관
부안청자박물관
제작지원 무진주디자인연구소

일러두기 Remarks

1. 이 책은 강진청자박물관에서 개최하는 『강진청자의 교류와 소통』(2012년 7월 28일 ~ 9월 30일) 특별전의 전시도록이다.
2. 유물 해설은 『강진청자박물관 소장유물 100선』 및 각 출토지 별 발굴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3. 유물 사진과 함께 해설을 수록하여 유물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4. 명제는 유물명(한글, 한문, 영문), 소장처, 제작시기, 크기 순으로 표기하였으며, 단위는 cm이다.
5. 소장처는 현 소장처를 기준으로 표기 하였으며, 유물명은 발굴보고서 상 유물명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6. 본문의 내용과 유물명, 제작시기, 해설은 본 박물관의 견해에 따랐다. 🇰🇷



목차 Contents

02 발간사

06 강진 그리고 고려청자

56 고려청자의 교류와 소통

58 강진 고려청자요지

60 태안 대섬 해저유적

66 무안 도리포 해저유적

70 해남 고려청자요지

72 군산 십이동 파도 해저유적

80 완도 어두리 해저유적

86 부안 고려청자요지

88 군산 비안도 해저유적

98 유물 목록



강진 그리고 고려청자

강진 그리고

고려청자

康津 高麗靑瓷



강진(康津)은 조선 태종대(1400~1418년) 도강현(道康縣)과 탐진현(耽津縣)이 통합되면서 갖추어진 행정구역이다. 따라서 고려시대는 도강현과 탐진현이 각각의 행정구역을 갖추고 있었으며, 고려시대 탐진현은 청자가 생산되기 시작하는 단계부터 그 기술이 유입되어 퇴장하는 시기까지 청자를 생산하고 발전시켰던 가장 대표적인 고려청자 요장(窯場)이다. 특히, 도기를 만들던 전통적인 제작 기술을 바탕으로 중국 도자 기술을 받아들여 독보적인 비생청자(翡色靑瓷)와 상감청자(象嵌靑瓷)를 완성하였던 곳으로 그 의미가 더욱 깊다.

또한 강진은 국가 재정과 물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운영되었던 '소(所)' 가운데 청자 생산을 담당하였던 대구소와 칠량소가 운영되어 청자를 공급하였던 곳으로 국가의 통제와 토착세력의 관리 하에 품질이 관리되었다. 따라서 강진청자와 고려청자는 별개로 생각할 수 없는 관계이며 강진청자의 변천사가 고려청자의 변천사이고 고려청자의 변천사가 강진청자의 변천사라고 할 수 있다.

고려청자는 선승(禪僧)들에 의한 다도(茶道) 보급과 강력한 해상세력을 구축하였던 장보고 대사에 의해 수입되었던 중국 청자가 고려에 더욱 확산되면서 자체적으로 청자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고려의 건국과 함께 사회가 안정되고 제도가 정비되면서 수도인 개경(開京)을 비롯하여 많은 곳에 다양한 건물이 신축되면서 이곳에 사용할 고급 기물이 대량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여러

지역에서 생산된 청자가 유통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 가운데 강진지역이 청자 생산의 중심이 된 것은 다른 지역에 비해 왕실을 비롯한 수요층의 미감과 일치하였으며 기술력이 월등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즉, 수요층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술력과 예술성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이다.

강진을 비롯한 전라도 지역은 풍족한 물산과 무역을 통한 부의 축적으로 자기에 대한 이해와 수요에 대한 욕구가 강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전라도 지역은 한반도의 곡창지대로 농경시대에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많아 음식과 음주, 음다 등 풍류문화가 발달한 곳으로 고급 도자문화를 적극 수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었다. 즉, 생산과 물류뿐만 아니라 소비지의 여건도 갖추고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도자문화가 더욱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바닷길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이를 통한 선진 기술의 신속한 유입과 용이한 원료 수급, 편리한 유통 수단 등이 발전을 촉진시켰다. 이러한 해로의 장점은 탐진의 지명이 탐라(현 제주)와의 해상 교류 때문에 생긴 것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한반도의 남단에 위치한 강진은 겨울과 여름의 기온 차가 심하지 않아 일년 내내 온난하여 사람이 거주하기에 적당한 곳이다. 또한 요장 주변에 품질이 우수한 태토가 매장되어 있으며 펄감과 수량이 풍부하여 우수한 도자 생산에 적합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강진지역이 고려청자를 선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은 이 지역에 선진 기술을 수용할 수 있었던 전문 기술과 우수한 문화, 그리고 이를 통제 운영할 수 있었던 세력집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







01

청자방형대

靑瓷方形臺

Celadon Square Stand

국립광주박물관 | 고려 12세기 | 높이 7.4 | 가로 16.9 | 세로 17.4

청자과형병과 함께 경기도 장단군 장도면에 있는 고려 인종(재위 1123-1146년)의 장릉에서 출토된 청자 유물 가운데 하나로 전해진다. 똑같이 생긴 다른 하나와 함께 한 쌍을 이룬 것으로 짐작되지만 용도는 확실하지 않다. 밑바닥은 퓌어 있으며 일종의 4능화형대(四菱花形臺) 모양으로 규모있게 짜여 있다. 이것과 같은 모양과 질의 4능화형대 파편과 6능화형대의 파편이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청자 가마터 조사에서 발견되었다. 중국 송대(宋代) 월주요에서 만든 청자 가운데 이것과 같은 작은 방형대(方形臺)가 영국 옥스포드 대학 부속 애쉬모리언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엷은 녹색을 띤 회청색의 유약이 입혀져 있고 광택이 매우 우아하며 빙렬(氷裂, 식은테)은 거의 없다. 12세기 전반기의 순청자 시대 최전성기 유약의 특징과 원숙한 번조(燔造) 기술을 보여준다. 🌿





02

청자상감모란문정병

靑瓷象嵌牡丹文淨瓶

Celadon Kundika with Inlaid Peony design

강진청자박물관 | 고려 13세기 | 높이 41.1 | 주구 입 지름 3.5 |

몸체 지름 14.5 | 굽 지름 9.4

물을 담는 주구와 물을 따르는 첨대로 이루어진 목이 긴 독특한 형태의 물병이다. 불교에서 부처나 보살에게 바치는 맑은 물을 담는다는 뜻에서 '정병'이라고 한다. 정병은 본래 깨끗한 물을 담는 물병으로 승려의 필수품인 18물(物)의 하나이던 것이, 선종과 관음신앙의 유행으로 차츰 부처 앞에 정수를 바치는 공양구(供養具)로 그 용도의 폭이 넓어지게 되었다. 주구에는 뚜껑이 있어 고리를 연결하게 되어 있었으나 결실되었다. 몸체에는 모란꽃을 자유롭게 백상감 하였으며, 가늘고 긴 출수구는 굽는 과정에서 약간 휘어졌다. 이와 유사한 형태의 정병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청동은입사 포류수금문정병」(국보 제92호)이 있다. 🇰🇷





03

청자음각모란문매병

靑瓷陰刻牡丹文梅瓶

Celadon Meiping Vase with Incised Peony design

강진청자박물관 | 고려 12~13세기 | 높이 40.0 | 입 지름 6.0 | 굽 지름 15.0

몸체에 가득히 모란꽃 무늬를 음각으로 새겨 넣은 매병이다. 어깨부터 다리에 이르는 선은 부드럽지만, 굴곡이 크고 몸체의 중심이 위쪽에 있어 긴장감을 준다. 무늬는 굽 바로 위에 가늘게 한 줄 번개 무늬 띠를 돌린 것 외에는 몸체에 가득하게 모란꽃넙쿨을 음각으로 채워 화려하다. 조각이 능숙하고 속도감이 있으며 세밀하게 묘사하여 사실감이 있다. 이와 비슷한 무늬가 있는 매병 편들이 강진 사당리 23호 가마터에서 확인되고 있다. 태토와 유약은 깨끗한 편으로 잘 녹았으나, 굽는 과정에서 산화되어 부분적으로 황녹색을 띤다. 굽은 안 바닥을 깎아낸 속 굽으로 굽바닥의 유약을 닦아낸 후 거친 내화토 비집을 받쳐 구웠다. 🌈





04

청자상감운학문매병

靑瓷象嵌雲鶴文梅瓶

Celadon Meiping Vase with Inlaid Cloud and Crane design

강진청자박물관 | 고려 13세기 | 높이 33.1 | 입 지름 6.0 | 굽 지름 11.8

고려청자 전성기의 당당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매병이다. 커다란 몸체에 구름과 학을 넉넉한 간격을 두고 배치하여 여백의미를 충분히 살리고 있다. 구름은 위쪽, 학은 아래쪽에 서로 엇갈리게 새겨 빈 공간에 균형감을 주었다. 구름은 아래에서 위로 피어오르는 모습으로 구불구불하게 표현되었고, 학은 깃털에서 발톱까지 섬세하게 표현되어 창공을 나는 모습과 날기를 멈추고 내려서려는 모습 등 각각 다양한 자세로 새겨져 있어 매병의 단아한 분위기에 변화를 주고 있다. 태토는 정선되었으나 유약은 일부 산화되어 부분적으로 갈색을 띠기도 한다. 🌈





05

청자상감연유화접문매병

靑瓷象嵌蓮柳花蝶文梅瓶

Celadon Meiping Vase with Inlaid Willow flower
and butterfly design

국립광주박물관 | 고려 14세기 | 높이 25.2 | 입 지름 4.3 | 굽 지름 9.4

고려 후기의 매병으로 크기는 작고 구연부가 결손 되었으나 최근에 보수 되었다. 둥근 어깨에서 몸체로 갈수록 점차 잘록해지고 다시 밖으로 퍼지면서 바닥에 이르는 S자 형태이다. 어깨는 흑백상감으로 몸체 저부는 백상감으로 연꽃잎 무늬가 시문되었으며 몸체 중심에는 버드나무와 학, 연꽃과 나비가 절반 정도씩 면을 차지하여 상감되어 있다. 특히 긴 목을 뒤로 꺾고 있는 학의 유연한 목, 학의 머리 뒤쪽으로 나 있는 깃털의 모습, 눈동자의 표현 등이 매우 이채롭다. 또한 반대면에 연꽃 사이를 날고 있는 3마리의 나비는 날개를 더듬이와 날개까지 백상감으로만 표현하였다. 유약은 투명도가 높은 회청색이고, 굽 바닥 4곳에 모래 빛음을 받쳐 구웠다. (1976년 광주광역시 동운동 출토) 🇰🇷





06

청자음각연화문병

靑瓷陰刻蓮花文瓶

Celadon Bottle with Incised Lotus design

강진청자박물관 | 고려 12세기 | 높이 32.5 | 입 지름 5.3 | 굽 지름 8.8



몸체에 음각으로 연꽃 가지 무늬를 새겨 넣은 병이다. 입술은 둥글고 도톰하게 다듬었으며 밖으로 약간 벌어져 있다. 입 바로 아래에는 작은 고리가 붙어 있는데 끈을 끼워 뚜껑과 연결해 사용하기 위해 만들었을 것이라 추측된다. 병은 벌어진 입에서 목으로 가면서 좁아지고 몸체로 가면서 다시 넓어져 풍만해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좁고 날씬하다. 무늬는 몸체 위쪽에는 2줄의 선과 여의두 무늬로 장식했고 몸체 중간부분에는 연꽃 가지 무늬로 음각하였는데 표현이 단순하고 간결하다. 태토와 유약은 정제되어 표면이 고르고 광택도 좋은 편이다. 🇰🇷





07

청자상감연지문편병

靑瓷象嵌蓮池文扁瓶

Celadon Flat Bottle with Inlaid lotus pond design

국립광주박물관 | 고려 14세기 | 높이 28.4 | 입 지름 8.9 | 굽 지름 9.4

직립된 구연과 짧은 목을 가진 병으로 몸통 양면을 납작하게 두드려 만든 편병이다. 어깨에는 흑백상감의 연꽃잎을 돌렸는데 내부에는 백상감의 구슬 무늬를 시문하였다. 납작한 양면은 능화형(稜花形)으로 문양대를 구획한 후 내부에 연화문과 물가에서 노니는 날짐승 2마리를 시문하였다. 곡면을 이루는 양측면은 구름 속에서 비상하고 있는 학을 그려 넣었다. 아랫면에는 백상감의 연꽃잎을 돌려 마무리하였다. 굽은 안 굽(속 굽)으로 유약을 닦아낸 후 굽 바닥에 모래를 받쳐 구웠다. 🏺





08

청자상감국류문병

靑瓷象嵌菊柳文瓶

Celadon Bottle with Inlaid Willow and Chrysanthemum design

국립광주박물관 | 고려 14세기 | 높이 32.0 | 입 지름 9.4 | 굽 지름 12.7

몸통이 가름하고 목이 길며 구연은 밖으로 벌어진 장경병(長頸瓶)이다. 구연부의 문양은 내·외면 모두 당초문을 돌리고 있는데 내면은 매우 간략화 되었다. 어깨에는 내부에 구슬 무늬가 있는 연꽃잎과 여의두(如意頭) 무늬를 돌렸다. 몸통부의 중심 무늬는 이중의 원문과 구슬 무늬를 돌려 같은 간격으로 4곳에 문양대를 구성한 후 그 내부에 국화와 버들을 각각 2곳에 같은 무늬가 마주 보도록 대칭으로 배치하였다. 또한 중심 무늬의 사이에도 각각 2송이의 국화문을 배치하고 있다. 아랫면에는 백상감의 연꽃잎을 돌려 마무리하였다. 굽 부분의 유약은 닦아내었으며 모래를 받쳐 구웠다. 🇰🇷





09

청자상감유로수금문병

靑瓷象嵌柳蘆水禽文瓶

Celadon Bottle with Inlaid Willow, Reed, Lotus, Bird design

강진청자박물관 | 고려 14세기 | 높이 35.3 | 입 지름 8.4 | 굽 지름 11.0

나팔처럼 벌어진 입과 훌쭉하고 유려한 목,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몸체의 균형이 조화롭고 아름다운 병이다. 몸체의 중심이 아래쪽에 있으며 서서히 팽창하며 부드럽게 좁아 드는 선이 세련되면서도 전체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한다. 몸체는 세로로 길게 음각 선을 사용하여 6개의 면으로 나누고 그 각각의 면에 서로 다른 무늬를 상감하여 넣었다. 가운데 넓은 면에는 연꽃, 버드나무, 학, 갈대 등을 상감하여 물가에서 유유자적했던 조상들의 멋스럽고 여유로운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듯하다. 태토가 곱고 유약도 잘 입혀졌으며 잘 녹아서 투명하고 광택이 좋아 최상급이지만, 무늬가 비례를 무시한 채 장식적이면서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고려 후기 청자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





10

청자사이호

靑瓷四耳壺

Celadon Four Handles Jar

강진청자박물관 | 고려 12세기 | 높이 35.0 | 입 지름 12.7 | 굽 지름 10.7

고려청자의 전성기에 만들어진 병으로 크기가 크고 몸체의 균형이 잘 갖춰졌다. 어깨에는 4곳에 고리를 달았는데, 흠
띠를 붙이는 지점에 퇴화 기법으로 흰색 점을 돌려가며 찍어 무늬 없는 몸체의 단조로움에 변화를 주었다. 이러한 기형은
뚜껑을 갖추고 있으나 현재 뚜껑은 전하지 않는다. 크기가 매우 크고 기벽은 얇은 편이며 구연이 넓어 액체보다는
알갱이가 있는 것을 저장하거나 보관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었을까 추측된다. 부분적으로 유약이 묻친 곳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고르게 잘 용용되어 비색청자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





11

청자상감매로학접문사이호

靑瓷象嵌梅蘆鶴蝶文四耳壺

Celadon Four Handles Jar with Inlaid Apricot flower, Reed, Crane and Butterfly design

강진청자박물관 | 고려 13세기 | 높이 23.0 | 입 지름 8.3 | 굽 지름 12.0

갈대를 중심 소재로 한 독특한 구성의 사이호이다. 원래 뚜껑이 있었으나 현재는 남아있지 않다. 갈대와 매화를 서로 마주 보도록 배치하고, 그 주변으로 위쪽에는 나비를, 아래쪽에는 학을 표현했다. 특히 갈대의 줄기와 잎은 선명한 흑상감으로 표현되어 시선을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사이호의 형태와 잘 조화되도록 적절히 배치되어 있다. 유색은 부분적으로 산화되어 갈색을 띠고 있으며 유약이 묻쳐 있는 곳도 있지만 형태와 문양의 완성도, 비색, 그리고 기형의 희소성 측면에서 고급 청자에 속한다. 굽은 안 바닥을 깎아 낸 속 굽으로, 굽 부분의 유약을 닦아낸 후 거친 내화토 가루를 받쳐 구웠다. 🌱





12

청자상감유연문호

靑瓷象嵌柳蓮文壺

Celadon Jar with Inlaid Willow, Lotus design

국립광주박물관 | 고려 13세기 | 높이 23.5 | 입 지름 9.3 | 굽 지름 11.0

구연이 짧고 밖으로 벌어진 호이다. 어깨에는 구슬 무늬가 있는 흑백상감의 연꽃잎을 돌렸다. 몸체에는 흑백상감으로 간략하게 그린 버들과 연꽃을 교대로 배치하였다. 각 문양대의 위·아래에 백상감의 선을 돌려 마무리하였다. 굽은 밖으로 벌어져 팔자형(八字形)을 이루고 있다. 굽 바닥과 안 바닥의 유약은 완전히 용융(熔融)되지 않아 황갈색을 띠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태토가 드러나 있는 곳도 있다.(전남 나주시 장산리 출토) 🇰🇷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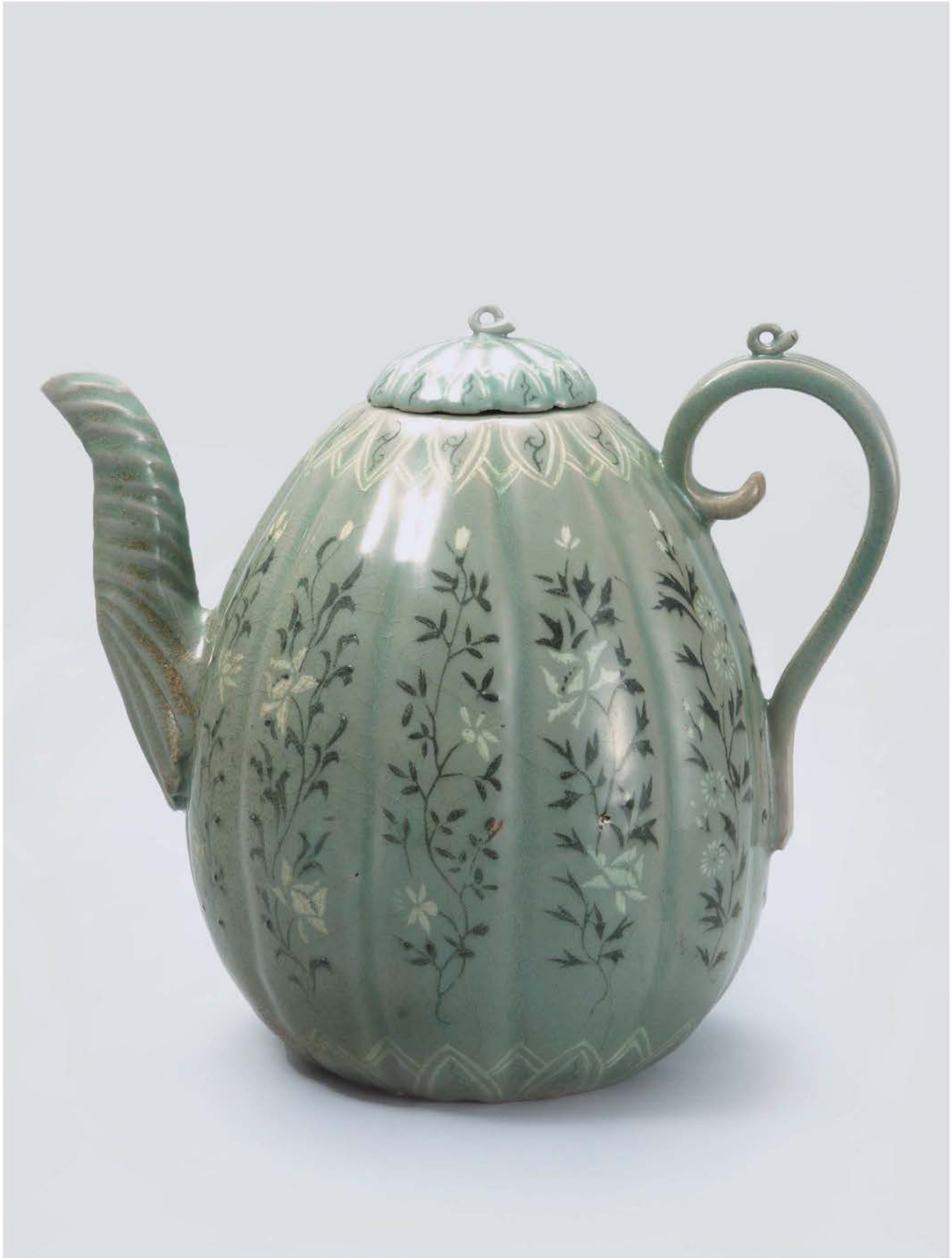
청자음각연화절지문과형주자·승반

靑瓷陰刻蓮花折枝文瓜形注子·承盤

Celadon Melon Shaped Pitcher with Incised Lotus design

강진청자박물관 | 고려 12세기 | 주자 높이 18.6 | 주자 입 지름 4.3 |
주자 굽 지름 8.7 | 승반 높이 5.1 | 승반 입 지름 18.6 | 승반 굽 지름 9.5

고려시대 중기의 전형적인 주자로 밑을 받치는 “승반(承盤)”을 갖추었다. 고려 전기 주전자에 비하면 물을 따르는 주구와 손잡이가 다소 길다. 뚜껑과 손잡이에는 서로 연결할 수 있는 식물 넝쿨 모양의 작은 고리가 있다. 몸체는 참외모양으로 면을 나누어 각각의 면을 따라 연꽃 가지 무늬를 음각하였고, 뚜껑과 맞닿은 입구 가장자리에는 가는 선으로 두 겹의 연꽃잎 무늬를 음각하였다. 승반은 입술 가장자리를 부분적으로 살짝 눌러 꽃모양으로 만들어 주자와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었다. 승반 안 바닥은 한 장의 연잎을 음각으로 표현하였고, 바깥쪽에는 주전자의 몸체에 새긴 무늬와 같은 연꽃 가지 무늬를 음각하였다. 🌸





14

청자상감연국모란문과형주자

靑瓷象嵌蓮菊牡丹文瓜形注子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 292호

Celadon Melon Shaped Pitcher with Inlaid Lotus, Chrysanthemum, Peony design

강진청자박물관 | 고려 13세기 | 총 높이 23.6 | 입 지름 5.0 | 굽 지름 10.0

참외와 같은 몸체에 세로로 골을 낸 후 물을 따르는 주구와 물을 담는 수구, 손잡이를 갖춘 주자이다. 크기와 유약의 투명도, 전체적인 조형성과 정교한 상감 기법 등 모든 면에서 매우 우수하다. 몸체의 굴곡진 부분은 12개의 면으로 나누어 각각의 면을 따라 연꽃 가지, 국화꽃 가지, 모란꽃 가지 등을 세로로 길게 상감하였다. 주구는 연잎을 말아 붙인 것처럼 조각하고 여러 개의 가로 선을 새겨 사실감 있게 묘사하였으며, 손잡이에는 세로로 선을 그어 굴곡지게 만들어 붙였다. 태토와 유약은 정제되어 곱지만, 바닥 면에 부분적으로 유약이 산화되어 녹갈색을 띠기도 한다. 굽 바닥의 유약을 닦아낸 후 6곳에 거친 내화토 비짐을 받쳐 구웠다. 🇰🇷





15

청자퇴화연국문과형주자

靑瓷堆花蓮菊文瓜形注子

Celadon Melon Shaped Pitcher with Underglaze Iron-Painted Lotus and Chrysanthemum design

강진청자박물관 | 고려 13세기 | 총 높이 19.8 | 입 지름 3.5 | 굽 지름 10.0

연꽃과 국화를 소재로 한 참외 모양의 주자이다. 무늬는 상감한 것이 아니라 흰색 흙과 검은색 흙을 붓에 묻혀 그리는 퇴화 기법으로 표현되었다. 고려청자 중에 퇴화 기법을 사용한 사례가 있으나 유물로서 발견되는 예는 흔하지 않다. 연꽃은 꽃봉오리와 연잎으로, 국화는 꽃송이를 2단으로 그렸는데 선이 경쾌하고 빠르게 그린 듯 울동적이다. 과일 형태의 몸체에 그려진 무늬는 연꽃과 국화꽃이 있으나 8개 면 중에서 중앙에 해당하는 면에만 연꽃 가지와 앞·뒷면에 하나씩 대칭이 되도록 그려 넣었다. 🌸





16

청자상감연화절지문과형주자

靑瓷象嵌蓮花折枝文瓜形注子

Celadon Melon Shaped Pitcher with Inlaid Lotus design

강진청자박물관 | 고려 13세기 | 총 높이 18.4 | 입 지름 3.9 | 굽 지름 9.9

참외 모양에 주구와 수구, 손잡이, 뚜껑 등을 모두 갖춘 주자이다. 몸통은 물레로 만든 후 세로로 골이 지도록 눌러 8개의 면으로 나누었다. 각각의 면에는 연꽃 가지 무늬를 좁고 긴 면과 조화를 이루도록 변형시켜 세로로 길게 상감하였다. 주자의 입구 둘레와 바닥 부분에는 연꽃잎 무늬를 세밀하게 새겨 상감하였으며, 물을 따르는 주구는 가는 선으로 음각하였다. 뚜껑의 꼭지와 손잡이 윗부분에는 식물 줄기 모양으로 구부려 붙인 장식을 달아 끈으로 연결하여 묶을 수 있도록 하였다. 태토가 곱고 유약도 비색으로 잘 구워졌으나 전체적으로 빙렬(氷裂, 식은테)이 많다. 굽 바닥의 유약을 닦아낸 후 거친 내화토 비짐을 받쳐 구웠다. 🌈





17

청자상감운학국화문개합

靑瓷象嵌雲鶴菊花文蓋盒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 293호

Celadon Bowl, Lid and stand with Inlaid Cloud, Crane, Chrysanthemum design

강진청자박물관 | 고려 14세기 | 총 높이 18.0 | 뚜껑 입 지름 18.4 |

발 입 지름 17.4 | 받침 입 지름 16.1 | 발 굽 지름 6.3 | 받침 굽 지름 6.5

커다란 발(鉢)에 뚜껑을 얹고 받침을 갖춘 한 벌의 합이다. 이 합은 크기와 형태, 구성으로 보아 특수한 용도를 위한 것이라 추정된다. 뚜껑에는 용을 간략하게 표현한 손잡이 겸 꼭지를 붙였고 꼭지 둘레로 연꽃잎, 국화꽃, 구름과 학 무늬 띠를 차례로 돌렸다. 발 역시 안쪽에는 국화꽃 한 송이를 가운데 두고 그 둘레로 구슬, 여의두, 구름과 학 무늬 등을 차례로 돌렸고, 바깥쪽 입술 부위에 번개 무늬 띠를 돌리고 그 아래로 구름 무늬, 둥근 원 무늬 속에 넣은 모란 무늬, 연꽃잎 무늬를 돌려 장식하였다. 받침대는 탁자와 비슷한 모양으로 윗면에는 구름과 학 무늬와 가장자리에 만(卍)자 무늬를, 아랫면에는 넝쿨 무늬를 바탕에 넣고 4곳에 국화 무늬를 넣었다. 굽 전체에 굵은 모래 비짐을 받쳐 구웠다. 🇰🇷



18

청자상감'왕'명잔탁

靑瓷象嵌'王'銘盞托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 294호

Celadon Cup Stand with Inlaid Inscription of 'Wang' (King)

강진청자박물관 | 고려 13세기 | 높이 7.1 | 지름 13.8 | 굽 지름 7.7

수평으로 붙인 넓은 전(가장자리에 덧댄 부분)과 높은 굽의 가장자리를 6개의 꽃잎 모양으로 도려낸 잔탁(盞托)이다. 본래는 잔과 잔 받침을 한 벌로 만든 것으로 추정되지만, 지금은 받침만 남아 있다. 잔 윗면에 있는 꽃잎 6장은 백상감 선으로 구획한 다음 꽃잎마다 '王'자를 흑상감 하였다. 중앙에 솟아 있는 잔좌(盞座)에는 연꽃잎 모양을 이중으로 조각하였다. 굽은 높고 밖으로 벌어졌으며, 굽과 잔의 하부는 유약이 용융되지 않아 탁한 갈색을 띤다. 잔을 받치는 부분과 전, 굽 등은 모두 따로 만든 후 붙였다. 강진청자박물관 부근(사당리 41호 가마터)에서 수습하여 박물관에 기증한 것이다. (김재보 기증) 🇰🇷



19

청자상감국화문탁잔

靑瓷象嵌牡丹菊花文托盞

Celadon Cup and Stand with Inlaid Chrysanthemum design

강진청자박물관 | 고려 13세기 | 잔 높이 4.8 | 받침 높이 2.9 | 잔 입 지름 4.8 | 잔 굽 지름 3.4 | 받침 굽 지름 8.4

잔(盞)과 잔탁(盞托)이 한 벌로 이루어진 탁잔이다. 잔과 잔탁은 입술 언저리 일부를 오려냈고 옆면은 눌러 8잎의 꽃모양으로 만들어 전체적으로 꽃봉오리가 막 피어나기 직전의 느낌을 형상화했다. 잔의 입술 가장자리와 굽의 위쪽에 음각선을 2줄 두르고 그 사이에 국화꽃 가지 무늬를 흑백상감으로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굽은 높고 좁아 오뎅한데 역시 꽃모양으로 만들었다. 잔좌와 잔탁의 사이 오목한 부분에는 음각으로 파도와 물고기 무늬를 넣었으며, 잔탁의 넓은 전에는 국화 무늬를 각각의 면에 1개씩 8개를 상감해 넣었다. 태토와 유약은 정제되어 고급이며, 표면에 빙렬(氷裂, 식은테)이 있다. 🌸



20

청자화형발

靑瓷花形鉢

Celadon Flower Shaped Bowl

국립광주박물관 | 고려 12세기 | 높이 6.1 | 입 지름 18.2

구연을 살짝 따내어 6화형으로 성형한 내저원각식(內底圓刻式) 발이다. 무늬는 없으며 부분적으로 기포와 잡물이 있다. 유약은 고르게 시유되었으나 유층이 뭉쳐 있거나 용융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굽바닥의 유약을 닦아낸 후 5곳에 백색 내화토 비집을 받쳐 구웠다. (강진군 성전면 출토) 🇰🇷



21

청자음각파어문화형발

靑瓷陰刻波魚文花形鉢

Celadon Flower Shaped Bowl with Incised Wave and Fish design

국립광주박물관 | 고려 12세기 | 높이 6.6 | 입 지름 17.4 | 굽 지름 5.1

구연을 6잎의 능화형(稜花形)으로 성형한 내저원각식(內底圓刻式) 발이다. 외 측면은 화맥(花脈)에 맞추어 세로로 살짝 눌러 표현하였다. 부분적으로 기포가 있으나 유약은 고르게 용융되었다. 무늬는 내면에만 시문하였는데 구연부는 한 줄 선을 돌렸으며 내저원각 내부와 측면에는 물결 속에서 노니는 물고기를 단아하게 묘사하였다. 굽 바닥의 유약을 닦아낸 후 4곳에 백색 내화토 비짐을 받쳐 구웠다. 🇰🇷



22

청자양각연판문대접

靑瓷陽刻蓮瓣文大椀

Celadon Bowl with Raised Lotus Petal design pattern

강진청자박물관 | 고려 12세기 | 높이 5.2 | 입 지름 16.6 | 굽 지름 6.6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균형과 비례, 조각과 표면 질감 등에서 거의 완벽한 고려청자의 기술을 보여주는 대접이다. 비교적 높이가 낮고 옆선이 완만하게 벌어져 거의 접시에 가까운 모양이다. 대접 안쪽은 완만한 곡선이며 무늬가 없다. 바깥쪽에는 꽃잎의 중간부와 가장자리를 입체적으로 깎아 돌을새김하여 14개의 연꽃잎을 섬세하게 이중으로 조각하였으며, 그 때문에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한 송이의 만개한 연꽃을 보는 것처럼 보인다. 표면 질감이 매끄럽고 광택도 적당하여 맑고 투명한 비색을 보여준다. 굽 안 바닥 3곳에 규석을 받쳐 구웠다. 🇰🇷



23

청자음각앵무문대접

靑瓷陰刻鸚鵡文大椀

Celadon Bowl with Incised Parrot design

강진청자박물관 | 고려 12세기 | 높이 5.3 | 입 지름 10.7 | 굽 지름 6.5

입이 넓고 키가 낮은 대접으로 기벽이 얇고 형태가 단정하며 안정감이 있다. 대접의 바깥쪽에는 무늬가 없지만, 안쪽 바닥에는 4마리의 앵무새를 새겨 넣었다. 앵무새는 머리에 깃털이 없고 꼬리가 길며 날개를 펼친 모습이며 그 위쪽에 8개의 구름을 같은 간격으로 배치하여 대접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구름이 있는 하늘에 앵무새가 날고 있는 형상이다. 특히 굽은 U자형으로 깎은 후 모서리를 다듬어 매끄럽게 만들고 굽바닥까지 유약을 입혔으며 안 바닥에 규석을 받쳐 구웠다. 유약은 비색으로 차분하며 은은한 광택을 띠고 있어 전성기 고급 청자의 특징을 보여준다. 🇰🇷



24

청자상감모란문대접

靑瓷象嵌牡丹文大椀

Celadon Bowl with Inlaid Peony design

강진청자박물관 | 고려 13세기 | 높이 5.6 | 입 지름 19.2 | 굽 지름 6.1

안쪽 면이 완만하고 둥글며 나지막한 대접이다. 무늬는 모두 흰색으로 상감 되어 있는데, 안 바닥에는 십자로 뺀 모란잎을 넣었고 옆면에는 모란꽃 가지 무늬를 섬세하게 새겨 넣었다. 입술 아래에는 가는 Ningkul 무늬 띠를 상감하였으며, 바깥 면에는 안쪽에 있는 것과 같은 모란꽃 가지 무늬를 4곳에 넣었다. 유약은 잘 녹아 맑은 광택이 나지만, 산화되어 일부에서 갈색을 띠는 곳도 있다. 굽 안 바닥 중심에는 '○'의 표식이 있는데 도장 같은 도구를 이용해 찍은 것으로, 강진 사당리 23호, 27호 가마터와 상류층 거주지에서만 집중적으로 발견되고 있어 왕실 등 국가의 공납과 연관된 특정한 수요를 위한 표식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25

청자철채양각동자문완

靑瓷鐵彩陽刻童子文碗

Celadon Bowl with Underglaze Iron-Painted, Pressed and Raised Child design

강진청자박물관 | 고려 12세기 | 높이 6.2 | 입 지름 14.2 | 굽 지름 4.1

굽이 낮고 좁으며 안 바닥은 약간 둥글게 벌어지다가 입까지 사선을 이루는 모양의 완이다. 그릇 안쪽은 압출 양각 기법으로 무늬를 넣고, 바깥쪽은 그릇 전체에 철분안료를 바르고 그 위에 유약을 입힌 철채(鐵彩) 기법을 사용하였다. 안쪽 면에는 다른 장식이 없이 어린아이 2명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한 아이는 서 있고 다른 아이는 앉아 있는 모습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다. 바깥 면은 철화안료를 굽 안 바닥까지 발라서 검은색을 냈다. 태토와 유약은 매우 정선되어 표면이 매끄럽고 비색을 띠는데, 전체적으로 빙렬(氷裂, 식은테)이 많다. 🌈



26

청자상감국화문 '삼관' 명잔

靑瓷象嵌菊花文 '三官' 銘盞

Celadon Cup with Inlaid Inscription of 'Sam-Gwan' and Chrysanthemum design

강진청자박물관 | 고려 13세기 | 높이 6.8 | 입 지름 10.3 | 굽 지름 3.4

'삼관(三官)'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는 잔이다. 잔 안쪽에는 무늬를 새기지 않고 바깥쪽에 국화꽃 가지를 흑상감 하였으며 고려시대 후기에 만들어졌다. '삼관(三官)'의 글씨는 새긴 솜씨가 서툴고 글씨의 획이 여러 번 끊어져 있기도 하다. '삼관(三官)'은 당시 관청과 관련된 내용이거나 도교(道敎)와 연관되었던 용어로 추정된다. 🇰🇷



27

청자화형접시

靑瓷花形碟匙

Celadon Flower Shaped Dish

국립광주박물관 | 고려 12세기 | 높이 2.0 | 입 지름 14.7 | 굽 지름 4.8

구연은 살짝 파내고 내부에 음각 선을 그어 6화형으로 성형한 접시이다. 내저면 가장자리에 한 줄의 선을 돌려 측면과 구분하고 있을 뿐 무늬는 없다. 유약은 고르게 시유되었으나, 부분적으로 기포와 잡물이 있다. 굽 바닥의 유약을 닦아낸 후 4곳에 백색 내화토 비집을 받쳐 구웠다.(강진군 성전면 출토) 🇰🇷



28

청자상감국화문능화형접시

靑瓷象嵌菊花文菱花形碟匙

Celadon Flower Shaped Dish with Inlaid Chrysanthemum design

강진청자박물관 | 고려 13세기 | 높이 2.5 | 입 지름 22.7 | 굽 지름 7.2 / 18.5

높이가 낮고 전체 모양이 능화 형태, 즉 마름모 모양을 한 접시이다. 이 접시는 능화형의 틀에 물레에서 성형된 접시를 얹어놓고 누르는 압출 양각 기법을 사용한 후, 그릇이 마르기 전에 무늬를 상감하여 만든 것이다. 접시의 바닥 가장자리에는 2줄의 양각 선이 그어져 있고 전의 위쪽에도 2줄의 선이 그어져 있는데 바깥쪽은 흰색, 안쪽은 검은색 선으로 상감 되어 있다. 능화형 접시는 강진 청자가마터에서 여러 점의 파편이 출토되었으나 완품으로 남아 있는 예는 많지 않다. 🌸



29

청자상감국화문합

靑瓷象嵌菊花文盒

Celadon Case with Inlaid Chrysanthemum design

강진청자박물관 | 고려 14세기 | 총 높이 3.3 | 입 지름 7.6 | 굽 지름 4.6 |

납작한 형태의 뚜껑을 갖춘 합이다. 뚜껑과 몸체가 잘 맞물릴 수 있도록 단을 이루고 있으며 그 부분에는 유약을 깨끗이 닦아내고 내화토 비짐을 받쳐 구웠다. 뚜껑 윗면에는 흑백으로 국화 무늬를 가득 차게 상감하였는데, 둥근 테두리 안에 한 송이의 국화 무늬가 있고 그 둘레에 구슬 무늬 띠와, 국화 무늬, 다시 구슬 무늬 띠를 순서대로 정교하게 반복적으로 장식하였다. 뚜껑과 몸체의 가장자리 부분에는 흰색으로 번개 무늬 띠를 돌렸다. 태토와 유약이 정선되어 매끄럽고 색도 투명하고 아름답다. 형태와 무늬 색깔 등 모든 점에서 정성스레 만들어 완성도 높은 고급품이다. 🇰🇷



강진, 해남, 부안
해저유적 출토 청자로 만나는

고려청자의 교류와 소통

강진

고려청자요지

康津 高麗靑瓷窯址



강진지역은 고려청자를 대표하는 가장 독보적인 생산지로 요장은 대구면(사적 제68호) 일대와 칠량면 삼흥리(기념물 제81호) 일대에 분포한다. 이중 핵심은 대구면 일대로 특히 龍門川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대구면 청자요지는 크게 용운리와 계율리, 사당리, 수동리 등 4개 지역으로 구분된다. 요지는 용문천 상류인 용운리에서 발생하여 용문천을 따라 해안의 사당리까지 매우 넓게 분포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확인된 가마터는 200여기로 시기적으로는 청자 발생기부터 14세기 쇠퇴 소멸기까지 고려시대 전 기간 동안의 가마터가 조사되고 있다.

용운리는 용문천 상류지역으로 운곡, 향동, 용문마을로 구성되었으며 75기의 가마터가 있다. 이 지역은 산세가 험하고 가마들이 산사면에 위치하고 있어 보존상태가 좋다. 이곳은 대부분 발생기를 비롯한 초기청자 가마들이 분포하고 있어 청자의 기원을 찾을 수 있는 초기청자의 특징과 발전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기종은 일상 생활용기가 대부분으로 회백색 내화토 비짐을 받쳐 포개 구웠으나 완은 1점씩 단독번조하였다. 무늬는 연판문과 국당초문이 있으며 변형해무리굽완이 출토되는 가마터에서는 철화와 퇴화 기법이 약간씩 확인된다. 그리고 원통형 갑발과 갑발 받침이 많이 출토되는데, 갑발 측면에는 다양한 음각 기호가 있어 주목된다.

계율리는 용문천 중류지역으로 계치와 청룡, 난산, 울촌마을로 구성되었으며 59기의 가마터가 있다. 무늬는 음·양각과 퇴화기법 등이 확인되며 기벽이 얇고 유약도 얇게 시유되어 있다. 이외에 13~14세기 상감청자가 일부 확인되고 있어 가마를 이동하면서 청자를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곳은 11세기 세련기 청자와 14세기 쇠퇴 확산기 청자를 함께 볼 수 있는 지역으로 청자의 변화과정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사당리는 용문천 하류의 비교적 넓은 들을 지나면 위치하는데 이곳이 고려청자의 절정기를 맞았던 지역이다. 사당리는 당전과 미산, 백사마을로 구성되었으며 43기의 가마터가 있다. 그러나 용문천의 침식과 비교적 넓은 들판에 위치하고 있어 오래 전부터 전담으로 개간되어 훼손된 곳이 많다. 특히 당전마을 가마터는 전성기 청자들로 비색의 완성과 상감청자가 세련 발달되던 12세기 전반에서 13세기에 생산된 절정기 청자가 가장 많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한국식 해무리굽완이 출토되는 가마터도 일부 있으며 14세기 가마터가 다수 발견된다. 당전마을 가마는 해안에 위치한 이웃 미산마을로 연결되어 쇠퇴 확산기인 14세기까지 운영된다.

수동리는 사당리 남쪽 들판에 있는 마을로 6기의 가마터가 있다. 가마터는 전담으로 개간되면서 많이 훼손되었다. 이곳은 미산마을과 마찬가지로 쇠퇴 확산기인 13세기부터 14세기대의 후기 상감청자를 주로 생산하였다.

칠량면 삼흥리 요장은 삼흥저수지 주변과 저수지 동남측 남산마을 주위에 넓게 분포하고 있다. 대구면 가마터와는 천태산을 경계로 바로 인접하여 있다. 칠량면 역시 국가의 통제를 받았던 자기소가 있었던 곳으로 고려청자 가마터와 조선 분청자 가마터 등이 함께 확인되고 있다. 📍



용문리 10-4호 가마



사당리 41호 가마

태안 대섬

해저유적

泰安 竹島 海底遺蹟



태안 대섬 해저유적 출토 청자는 충청남도 태안군 근호면 정죽리에 소재하는 대섬 남방 해저에서 인양된 고려청자들로 주꾸미 어로작업 중 우연하게 해저에서 청자들을 발견하여 신고함에 따라 문화재청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의 수중탐사팀에 의해 긴급 조사가 실시되어 인양된 고려청자들이다. 2007년, 2008년 2차에 걸쳐 발굴 인양된 유물은 2007년 22,577점(도자기 22,538점/목간 34점)과 2008년 924점 등으로 총 23,462점에 달한다.



태안 대섬 해저유적에서는 고려청자의 생산과 유통 과정을 알 수 있는 목간이 함께 출토되어 탐진(강진)의 대구소에서 생산된 청자가 지방세력의 책임으로 선적되었으며, 중심 소비자는 개경에 거주하는 유력자들이었음이 밝혀져 청자의 생산과 유통 과정을 연구하는데 많은 자료를 제공하였다.



태안 대섬 해저유적 출토 청자는 고려 중기의 부족한 자료를 매워줄 수 있는 자료들이고 제작 시기는 13기초인 1200년 초에 제작되었다. 제작 산지로는 목간에 묵서된 탐진(강진)일대로서 1980년대 국립중앙박물관이 발굴 조사한 강진 용운리 10-2호 요지를 유력한 산지로 추정할 수 있다. 13세기 초에 강진 용운리에서 제작되어 개경의 관청과 최씨 무신정권을 위한 공물로서 강진을 출발하여 운반되다가 침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30

청자음각모란당초문화형대접

靑瓷象嵌牡丹文大椀

Celadon Flower Shaped Bowl with Incised Peony and Vine design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고려 12세기 | 높이 6.8 | 입 지름 19.3 | 굽 지름 5.1

저부에서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며 사선으로 올라가다가 기체 상부에서 약하게 꺾여져 구연이 직립하는 화형대접이다. 구연의 6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오려내어 화형을 표현하였고, 구연 아래 한 줄 선을 돌리고 아랫부분에 모란문을 음각으로 시문하였다. 두 송이 모란이 마주보고 있으며, 그 사이에 넝쿨이 음각되어 있다. 모란의 꽃잎과 잎의 세부를 빗 형태의 도구를 사용하여 장식하였다. 유약은 고르게 시유되어 있으며, 내저원각에 유약이 고여 진한 색을 띠고 있다. 유색은 양호하고 전체에 빙렬(氷裂, 식은테)이 있다. 굽 바닥 4곳에 내화토 비짐을 받쳤으나 접지면의 유약을 닦아 내지 않아 내화토 비짐과 유약이 뭉쳐 있으며, 떼어낸 흔적이 남아 있다. 🇰🇷



31

청자음각모란당초문발우

靑瓷陰刻牡丹文鉢盂

Celadon Bowl with Incised Peony and Vine design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고려 12세기 | 높이 6.1 | 입 지름 18.4 | 굽 지름 5.2 |
 높이 4.8 | 입 지름 17.1 | 굽 지름 4.6 | 높이 3.5 | 입 지름 15.2 | 굽 지름 4.0

발굴 당시 4개가 포개져서 함께 출토되었으나 맨 바깥쪽 발우의 일부가 깨진 채로 발굴되었다. 사진은 맨 바깥쪽 발우가 제외된 사진이다. 안쪽으로 2번째 발우는 기층선이 거의 수평으로 벌어진 저부에서 부드러운 곡선으로 올라가다 동체 상부에서 꺾여 구연에서 내만하는 발우이다. 3번째 발우는 기층선이 부드러운 곡선으로 올라가다 동체 상부에서 꺾여 구연에서 직립하는 발우이다. 4번째 발우는 기층선이 거의 수평으로 벌어진 저부에서 약하게 올라가다 구연에서 직립하는 발우이다. 4개의 발우가 구연부 아래로 짙은 한 줄의 선이 둘러져 있고 굽은 평저이다. 유태는 정선되었으며, 부분적으로 뭉쳐 있는 것도 있지만 고르게 시유되었고, 굽 바닥의 유약을 닦아내고 4곳에 내화토 비짐을 받쳐 구웠다. 🇰🇷



32

청자음각파도문완

靑瓷陰刻波濤文碗

Celadon Bowl with Incised Wave design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고려 12세기 | 높이 5.0 | 입 지름 15.3 | 굽 지름 3.4

측사면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다가 구연이 내만한 완이다. 굽은 낮은 다리굽이다. 구연 아래 한 줄 음각선을 돌리고, 그 아래에 물결을 가득 시문하였다. 물결 안에 가는 음각선을 사용하여 세부를 표현하였다. 원각 중앙에 직선에 가까운 곡선을 그려 넣고, 그 양쪽에 가는 음각선을 시문하였다. 시유가 전체적으로 두텁고 고르게 되었고, 유색과 기형이 좋고, 일부분에 빙렬(氷裂, 식은테)이 있다. 굽 바닥의 유약을 닦아내고 3곳에 내화토 비짐을 받쳐 구웠다. 🇰🇷



33

청자양각연판문접시

靑瓷陽刻蓮瓣文碟匙

Celadon Dish with Raised Lotus Petal design pattern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고려 12세기 | 높이 4.2 | 입 지름 15.4 | 굽 지름 5.0

외면에 이중의 양각 연판문이 장식된 접시이다. 평평한 내저면에는 넓은 원각이 있으며, 측사면은 저부에서부터 완만한 사선으로 올라가다가 원각에서 약하게 꺾여 사선으로 올라간다. 구연은 직립하고, 굽은 내경하는 다리굽이다. 외면에 13장의 연꽃잎이 이중으로 겹쳐진 듯 표현되었다. 꽃잎 가장자리를 깊게 깎아 꽃잎이 도드라져 보이게 조각하였다. 유태는 정선되었으며, 고르게 시유된 유약은 가는 빙렬(氷裂, 식은테)이 전면에 있다. 굽 바닥 유약을 닦아내고 4곳에 내화토 비짐을 받쳐 구웠다. 🇰🇷



34

청자음각선문합

靑瓷陰刻線文盒

Celadon Case with Incised Line design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고려 12세기 | 총 높이 4.3 | 뚜껑 높이 4.4 | 입 지름 6.4 |
합신 높이 3.1 | 입 지름 5.5 | 굽 지름 3.2

뚜껑과 몸체 전면을 음각으로 시문한 합이다. 뚜껑은 윗면 중앙이 곡면이다. 곡면 외부에서 경사를 이루며 가장자리로 이어지다 수직으로 꺾여 접지면으로 떨어지는 형태이다. 몸체는 뚜껑과 맞물리는 구연에서 수직으로 내려오다 꺾여 경사를 이루며 바닥면 가장자리까지 이어진다. 뚜껑과 몸체가 잘 맞물린다. 굽은 평저이다. 뚜껑 윗면에는 9장의 잎이 달린 꽃 문양이 시문되었다. 꽃잎마다 짧은 음각선을 시문하였다. 측면에 둥근 곡선들이 기물을 돌아가며 음각되어 있다. 4개의 둥근 곡선은 뚜껑과 몸체에 절반씩 시문되어 있는데 문양이 정확하게 이어진다. 유약이 내외면 전체에 시유되었으며, 유색은 양호하다. 전체에 빙렬(氷裂, 식은테)이 있다. 맞물리는 부분의 유약을 깨끗이 닦아내고 내화토 비짐을 받쳐 뚜껑을 엮은 상태로 구웠다. 굽 바닥의 유약을 닦아내고 내화토 비짐을 3곳에 받쳐 구웠다. 🇰🇷

무안 도리포

해저유적

務安 道里捕 海底遺蹟

무안 도리포는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송석리 도리포 해역에 위치하며, 앞에는 칠산해역이 펼쳐져 있다. 1995~1996년에 3차례의 수중 유물 탐사를 실시한 결과 14세기 상감청자 총 639점을 인양하였는데 대부분 생활용기인 대접 561점과 접시 72점이 확인되었으며, 일부 발과 잔, 잔받침 등이 있으나 병과 호 등 특수(의례) 기종은 출토되지 않아 14세기 이후 실용품 중심의 도자산업을 엿볼 수 있다.



문양은 구름과 봉황, 국화, 모란, 연꽃, 갈대 등이 자유롭고 생동감 있게 표현되었으나 대부분 말기청자의 특징인 인화기법의 간략화된 반복문양이 듬성듬성 거칠게 시문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접에 시문된 문양은 구름과 운봉, 운학, 국화, 연당초, 연꽃, 유노수금, 화훼조충, 선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 구름과 운봉이 가장 많이 시문되었다. 접시는 구름과 국화, 연꽃, 여의두, 유노수금, 파도, 선 등으로 나누어진다. 발에 시문된 문양은 연당초봉황이며, 잔에는 운학과 갈대가 시문되었다. 잔받침에는 구름과 연꽃잎이 확인된다.



무안 도리포 해저유적 출토 청자 문양 가운데 대접과 발에 시문된 연당초는 14세기경부터 강진 사당리 가마에서 유행하였으며, 고려 말~조선 초에 타지역으로 확산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도리포 출토 상감청자는 고려청자의 쇠퇴과정뿐만 아니라 조선 분청자로의 이행과정을 밝힐 수 있는 과도기적 양상을 보여 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이들 청자들은 기형과 문양, 변법 등 제작방법으로 보아 14세기 말기에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10호 요지 일대에서 제작하여 개경으로 운반 도중 침몰하였음을 알 수 있다. 🇰🇷





35

청자상감운봉문대접

靑瓷象嵌雲鳳文大椀

Celadon Bowl with Inlaid Cloud and Phoenix design

국립광주박물관 | 고려 14세기 | 높이 8.7 | 입 지름 19.8 | 굽 지름 5.9

내저원각식 대접으로 구연은 거의 직립하며, 외 측면 하부는 직선화되었다. 문양은 내면 구연부에 3줄의 선문이 있고 내저면에 연화문과 이중원각문을 차례로 백상감하였으며 이들 사이에 흑백상감된 운봉문을 2곳에 시문하였다. 또한, 이 운봉문 사이에 2줄로 백상감된 운문이 있다. 외면은 상·하단에 각각 2줄의 선문을 백상감하였다. 유색은 암녹색으로 상태가 양호하다. 굽 바닥에 모래를 받쳐 구웠다. 🇰🇷



36

청자상감유연수금문대접

靑瓷象嵌柳蓮水禽文大椀

Celadon Bowl with Inlaid Willow, Lotus and Bird design

국립광주박물관 | 고려 14세기 | 높이 5.4 | 입 지름 18.3 | 굽 지름 5.9

내저곡면식 대접으로 외 측면은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있다. 문양은 내면 구연부에 단순화된 당초문대와 한 줄 선문을 내저면에는 이중원문, 여의두문을 각각 백상감으로 시문했다. 이들 사이 3곳에 흑백상감 수금문을 등간격으로 배치하고 2곳에는 연화문을 한곳에는 버드나무를 흑백상감하였다. 유색은 담녹색과 다갈색을 띠며 굽 바닥에 모래를 받쳐 구웠다. 🌈



37

청자상감운문잔

靑瓷象嵌雲文盞

Celadon Cup with Inlaid Cloud desi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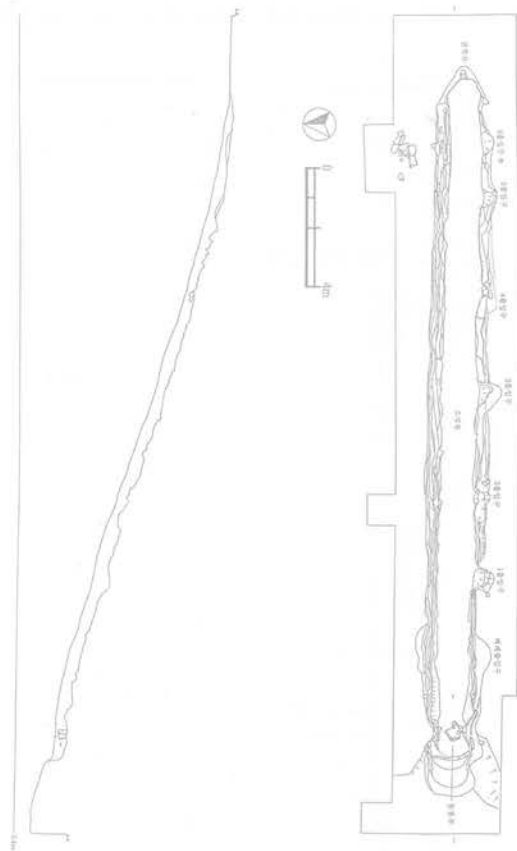
국립광주박물관 | 고려 14세기 | 높이 5.1 | 입 지름 9.2 | 굽 지름 4.9

측면은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구연이 약간 안으로 좁아지는 잔이다. 문양은 내면은 구연부에 3줄의 선문과 내저면에 이중원권문을 백상감하고, 이들 구연부와 내저면 사이 4곳에 학을 시문하였다. 외면은 상·하단에 각각 2줄의 선문을 백상감하였다. 유색은 담녹색을 띠며 용융상태는 좋지 않다. 굽 바닥 3곳에 흑토 비짐을 받쳐 큰 기종 위에 올려 포개 구웠다. 🇰🇷

해남

고려청자요지

海南 高麗靑瓷窯址



해남지역은 한반도에서 시기별 가마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화원면(기념물 제220호) 일대와 산이면(사적 제310호) 일대에 많은 가마터가 분포하고 있다. 산이면은 구성리 2기와 진산리 80기, 초송리 24기 등 모두 106기가 확인되었으며, 화원면에서는 신덕리와 금평리 일대에서 61기의 초기요지가 조사되었다. 이는 강진 대구면 일대의 청자요지에 버금가는 대규모 요장으로 단기간 동시에 운영되어 초기청자의 양상과 조질청자의 변천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화원면 요지는 해변에 위치하고 있으나 산이면에 비해 보다 내륙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이는 강진을 비롯한 대부분의 초기 가마터와 비슷한 입지조건이다. 즉, 이들 가마들은 해안과 가까운 산간에 위치하고 있어 하나의 특징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번조할 때 발생하는 해풍의 영향을 극소화하면서 해로를 이용한 기술유입과 자기의 공급을 배려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산이면 요지는 해안선을 따라 분포하는데 해안선의 지속적인 침식으로 당시의 해안선을 알 수 없어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가마가 운영되던 시기에도 해안과 연접하였으리라 추정된다. 따라서 바다와 인접한 산이면 청자의 태토와 수원은 염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조질청자가 될 수밖에 없는 제작환경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해남청자는 대부분 태토를 정제하지 않고 있는데, 정제하지 않은 태토에 포함된 철분은 번조과정에서 분출되어 유색에 절대적 영향을 준다.



해남 청자는 수요층에 따른 품질분화의 필요성에 의해 생산되었으나, 입지 조건도 품질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해남과 강진이 서로 수요층에 따른 역할분담 또는 용도 등에 따른 품질분화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용도에 따른 품질분담은 강진유형과 해남유형의 청자가 함께 출토되는 많은 유적에서 확인된다. 이들 유적에서는 병과 호 등 저장용기는 해남유형이 대접과 접시 등 음식용기는 강진유형이 출토되고 있다. 따라서 해남청자는 지방과 일반귀족, 하급관청 등의 수요를 위해 제작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해남에서도 일부 고급청자를 제작하였는데 화원면 청자의 경우 한국식 해무리굽완은 품질 좋은 유약과 태토를 사용하였으며, 내저면에 받침 흔적이 없고 갑발에 넣어 번조하여 제품이 우수하다. 산이면은 철화청자와 철채청자 등이 우수한데, 특히 장고와 호, 병, 반, 주자 등은 진산리에서만 출토되고 있다. 또한 수량은 적지만 갑발에 넣고 우수한 유약과 세련된 문양을 사용하여 정성을 들인 양질품도 일부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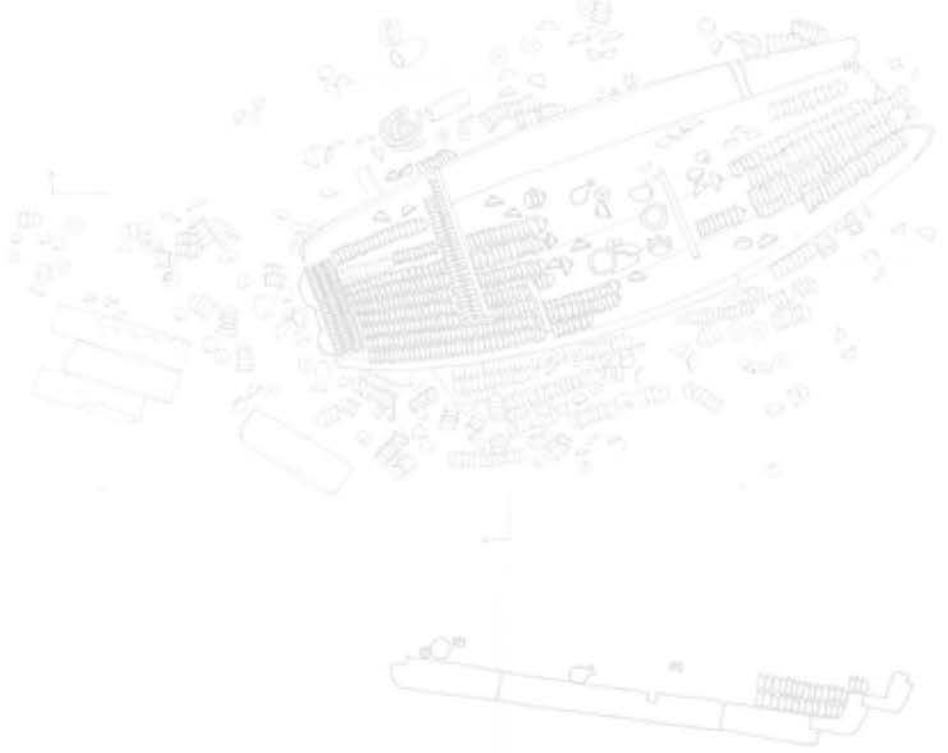
해남지역 청자의 기종과 기형, 유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화원면 청자가 산이면 출토품보다 이른 시기에 제작되었으며, 화원면에서 산이면으로 제작집단이 이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화원면은 기형으로 보아 청자 발생기의 초기 가마터에 해당하며 운영시기가 매우 짧은 것이 특징이다. 산이면도 고려전기의 짧은 시기에 한정적으로 생산하였다. 이처럼 운영시기가 짧은 것은 일시에 많은 가마가 운영되어 주변의 연료와 태토가 고갈되어 나타난 결과로 추정된다. 그리고 해남지역 가마는 대부분 도기들이 함께 출토되고 있어 이들이 동일 가마에서 함께 생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



군산 십이동파도

해저유적

群山 十二東波島 海底遺蹟



십이동파도를 비롯한 고군산군도 해역은 1970년대 이래 해저유물의 발견 신고가 많은 지역으로 해저유적의 보고라 할 수 있다. 유적의 위치는 해상 연안항로에서 약간 벗어나 있지만,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조세를 운반하는 해상항로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지역이다. 2003년 9월 조개잡이 어부의 신고로 발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출토 유물은 선체편 14점과 도자기 등 8,743점이다. 특히

십이동파도 해저유적에서는 청동 숟가락과 철제 숟, 시루, 돌판, 석제 닻장, 나무 썰기, 짚, 갈대, 밧줄 등 선원들의 선상 생활을 밝힐 수 있는 유물들이 많이 인양되었다.



가장 큰 성과는 청자의 선적방법을 밝힐 수 있는 포장용 썰기와 갈대, 짚 등이 인양되었다는 점이다. 청자의 선적은 30~40개의 청자를 1줄로 포개어 그대로 배에 적재하였는데, 긴 열을 따라 4곳에 나무 썰기를 대고 썰기 끝과 끝을 줄로 연결해 청자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였다. 나무썰기의 끝은 줄로 묶기 쉽도록 홈이 파여 있다. 또한 청자와 청자 사이에는 완충재인 짚과 갈대를 넣어 청자가 깨지지 않도록 하였다. 이런 선적방법은 상자를 이용하는 것보다 많은 양을 적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군산 십이동파도 해저유적 출토 청자는 화형점시의 유형과 턱이 있는 반구병, 변형 해무리굽완이 확인되고 있어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신덕리 청자가마터에서 생산된 유형과 비슷하다. 또한 제작시기는 해무리굽이 퇴화된 변형 해무리굽이 출토되고 있어 1100년을 전후한 11세기 후반에서 12세기 초반으로 추정된다. 🇰🇷



38

청자대접

靑瓷大椀

Celadon Bowl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고려 11세기 | 높이 7.8 | 입 지름 15.3 | 굽 지름 6.9

내저곡면식 대접으로 내저면은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측면은 저부에서 입술에 이르기까지 완만한 곡선으로 내만하다가 입술부 가까이에서 변곡하여 약간 내만한다. 유색은 투명한 담갈색이며, 입술부에 일부 녹색이 있다. 굽은八字형으로 약간 외반되었다. 내저면에 4곳과 굽 바닥 5곳에 백색 내화토 비짐을 받쳐 구웠다. 🇰🇷



39

청자 덮개

靑瓷蓋

Celadon Lid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고려 11세기 | 높이 5.3 | 입 지름 17.3 | 굽 지름 7.5

주로 대접이나 발에 뚜껑으로 사용하는 덮개이다. 내저면은 편평하며 완만한 곡선으로 내만하다가 입술부에서 직립한다. 손잡이는 대접 굽 모양으로 8자형이다. 태토는 회색이며 유약은 얇고 투명한 갈색이다. 내저면과 손잡이 윗부분 5곳에 백색 내화토 비집을 받쳐 구웠다. 🇰🇷



40

청자완

靑瓷碗

Celadon Bowl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고려 11세기 | 높이 5.7 | 입 지름 13.7 | 굽 지름 4.7

내저원각식 완으로 내저면에 굽 지름보다 작은 원각이 있다. 내저면에서 구연부에 이르는 측면은 사선에 가까운 완만한 곡선을 이룬다. 유색은 밝은 회녹색으로 얇게 시유하였다. 굽은 외 측면 높이에 비해 안 바닥을 매우 얇게 깎았다. 태토는 치밀하게 정선되었다. 굽은 변형 해무리굽 유형으로 전면 시유 후 굽 바닥을 닦아내고 구웠다. 🇰🇷



41

청자소접시

靑瓷小碟匙

Celadon Small Dish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고려 11세기 | 높이 4.4 | 입 지름 11.2 | 굽 지름 5.0

내저곡면식 소접시로 측면은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내만하다가 입술부에서 전 형태로 부드럽게 외반한다. 태토는 매우 정선되었으며, 유색은 투명한 담녹색이다. 굽은 외 측면의 경우 직선이고 내측면은 사선을 이룬다. 굽 바닥 유약은 시유 후 닦아내었다. 내저면과 굽 바닥 4곳에 백색 내화토 비짐을 받쳐 구웠다. 🇰🇷



42

청자평접시

靑瓷平楨匙

Celadon Flat Dish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고려 11세기 | 높이 3.7 | 입 지름 14.4 | 굽 지름 6.1

내저곡면식 접시로 내저면은 편평하다. 내저면에서 완만하게 내만하여 입술부에 이르며, 입술은 부드럽게 외반하여 전을 이루고 있다. 태토는 모래가 섞여 있으며, 내외면에 기포가 있다. 유색은 두텁고 불투명하며 담녹색을 띤다. 굽은 내측면이 더 깊으며 형태는 외 측면의 경우 직선이고 내측면은 사선을 이룬다. 내저면과 굽 바닥 4곳에 백색 내화토 비짐을 받쳐 구웠다. 🇰🇷



43

청자화형접시

靑瓷花形碟匙

Celadon Flower Shaped Dish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고려 11세기 | 높이 4.2 | 입 지름 12.2 | 굽 지름 5.5

내저원각식 화형접시로 내저면에 편평한 원각이 있다. 입술과 측면을 8화형으로 성형하였으며 사선에 가까운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있다. 태토는 회색으로 치밀하며, 유색은 얇고 투명한 녹색이다. 굽은八字형으로 내측면이 조금 더 깊다. 내측면과 굽 바닥 4곳에 백색 내화토 비짐을 받쳐 구웠다. 🇰🇷



44

청자유병

靑瓷油瓶

Celadon Oil Bottle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고려 11세기 | 높이 11.0 | 입 지름 4.6 | 굽 지름 5.3

동체가 원형인 유병으로 구연이 넓은 광구형이다. 목이 짧고 어깨에서 동체까지 완만한 곡선으로 내려오다가 동체 중간에서 부드럽게 축약되어 저부에 이른다. 굽은 직립하며, 내측면은 사선형이다. 태토는 회색이며 유색은 투명한 암갈색으로 부분적으로 녹색을 띤다. 굽 바닥 4곳에 백색 내화토 비짐을 받쳐 구웠다. 🇰🇷

완도 어두리

해저유적

莞島 漁頭里 海底遺蹟



완도 어두리는 전라남도 완도군 약산면 어두리 어두지섬 앞바다에 위치하며 문화재관리국에서 1983~1984년 발굴 조사를 실시하였다. 유적이 위치한 곳과 어두지섬 사이에는 암초가 형성되어 있는데, 썰물 때는 위 부분이 약간 드러나지만 밀물 때는 물 속에 잠겨 항해하기에 매우 위험한 곳이다. 물의 흐름은 2~3노트이며 시계가 혼탁하여

조사에 어려움이 많았다.

유물은 개펄 속에 묻혀 있어 보존상태가 좋았으나 배는 훼손이 심하여 해체 방식으로 인양하였다. 선박은 10톤 정도의 평저선으로 도자기를 비롯해 선원 생활품 등 30,701점의 유물이 선적되어 있었다.



도자기는 몇 점의 흑유 도기와 연질 도기가 있지만 대부분 청자들이다. 청자는 생활 용기인 대접과 접시, 완, 잔 등이 대부분으로 30,000점 이상이 인양되었다. 그 외에 청자반구병 103점과 매병 11점, 장고 3점, 유병, 호, 발 등이 있다.



청자철화모란당초문장고

완도 어두리 해저유적 출토 청자는 재질이 거친 조질청자(녹청자)로 미술적 가치는 높지 않다. 그러나 실생활용 그릇이 종류별로 대량 인양되어 당시의 생활과 문화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그릇 제작지가 해남군 산이면 진산리 일대(사적 제310호) 가마터로 밝혀져 도자의 제작과 수급, 이동 등 다양한 학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완도선은 국내에서 발굴된 최초의 선박으로 11세기 후반 고려 도자 연구와 자료가 부족한 우리 배(韓船)의 역사와 변천 과정을 밝히는데 많은 학술 정보를 제공하였다. 🇰🇷



45

청자광구병

靑瓷廣口瓶

Celadon Bottle

국립광주박물관 | 고려 11세기 | 높이 28.4 | 입 지름 8.7 | 굽 지름 8.6

목은 길며 구연부가 넓고 직립된 광구병이다. 무늬는 없으며 태토가 거칠어 기포가 많고 가는 모래를 비롯한 잡물이 많다. 굽 깎음새가 단정하지 않으며 부분적으로 시유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 굽 바닥과 안 바닥에 굵은 모래를 받쳐 구웠다. 🇰🇷





46

청자철화보상화문매병

靑瓷鐵畫寶相華文梅瓶

Celadon Meiping Vase with Underglaze Iron Painted Bosang-hwa design

국립광주박물관 | 고려 11세기 | 높이 25.1 | 입 지름 6.1 | 굽 지름 8.9

구연부가 넓고 짧은 광구형(廣口形)으로 측면은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있는 매병이다. 유약이 고르게 용융되지 않아 유색이 일정하지 않다. 무늬는 모두 철화 안료를 사용하여 그렸는데 어깨부에는 물결 모양의 당초문을 돌렸다. 몸통에는 같은 간격으로 3곳에 커다란 보상화문을 배치하였다. 굽은 부분적으로 시유되지 않은 곳이 있으며, 굽 바닥에 모래를 받쳐 구웠다. 🇰🇷



47

청자광구편병

靑瓷廣口扁瓶

Celadon Flat Bottle

국립광주박물관 | 고려 11세기 | 높이 25.7 | 입 지름 8.8 | 굽 지름 10.7

직립된 구연과 짧은 목을 가졌으며 몸통 양면을 납작하게 두드려 만든 편병이다. 무늬는 없으며 유약도 고르게 시유되지 않아 부분적으로 유층이 형성되지 않은 곳도 있다. 거친 태토를 사용하여 표면에 기포가 많고 가는 모래를 비롯한 잡물이 많다. 굽은 평저로 시유 후 닦아낸 다음 구웠다. 🇰🇷



48

청자대접

靑瓷大椀

Celadon Bowl

국립광주박물관 | 고려 11세기 | 높이 5.9 | 입 지름 16.7 | 굽 지름 6.9

측면은 사선을 이루며 구연부는 살짝 밖으로 벌어진 형태의 대접이다. 태토가 거칠어 내외면에 모래를 비롯한 잡물들이 많으며 유약도 황갈색을 띠고 있다. 굽 바닥의 유약은 시유 후 깨끗이 닦아내었다. 굽 바닥과 내저면 5곳에 백색 내화토 비짐을 받쳐 포개구웠다. 🇰🇷

부안

고려청자요지

扶安 高麗靑瓷窯址

부안지역은 고려시대 강진과 함께 양질청자 생산의 쌍벽을 이루는 곳으로 도자사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곳이다. 부안청자를 대표하는 요장은 보안면 유천리(사적 제69호, 45여기)와 진서면 진서리(사적 제70호, 40여기)로 11세기 후반에서 14세기 전반에 이르는 오랜 기간 운영되었는데, 특히 상감청자는 최고의 솜씨를 보여주고 있다.

전라북도 줄포만 연안에 분포하는 고려시대 요장은 고창과 부안 일대를 중심으로 대단위로 형성되어 있다. 이 일대는 고창 용계리 청자요지(사적 제345호)를 비롯해 많은 가마터가 분포하는데, 진서리 청자요지는 1022년(현종 13)을 전후한 시기에 운영된 고창 용계리 청자요지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따라서 이보다 약간 늦은 시기에 고창 용계리와 반암리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장인들이 건너와 정착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창을 중심으로 청자 제작기술을 받아들인 줄포만 일대의 청자문화는 진서리 청자요지 단계에서 그 기술을 발전시키고, 이후 유천리 단계에서 청자문화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우수한 상감청자를 제작한다.

부안 고려청자요지는 진서리와 유천리, 우동리, 신복리 등에 분포하는데, 이들은 모두 줄포만에 연접하여 위치하고 있다. 진서리는 6개 구역에 모두 40여곳의 가마터가 분포하고 있으며, 유천리는 진서리로 뻗어 있는 도로 좌우측 구릉에 위치하는데, 주로 줄포만과 연접한 낮은 구릉에 군집을 이루며 7개 구역에 45여곳의 가마터가 분포하고 있다. 우동리 가마터는 마을 앞의 전답과 구릉, 마을 뒤의 산과 구릉, 마을 북쪽에 위치한 저수지 주변 등에 분포한다. 신복리 가마터는 유천리와 경계를 이루는 부분의 도로 좌측에 위치하는데 개간과 경작, 도로개설 등으로 훼손이 심하며 유물도 계속 유실되고 있다.



부안 진서리 18호 가마



부안 유천리 7구역 5호 가마

진서리 출토 청자는 태토가 거칠고 유약은 얇게 시유되었으며 짙은 녹색을 띠는 등 유천리나 강진청자에 비해 그 품질이 떨어진다.

유천리 출토 청자의 경우 유약은 녹색이 짙거나 투명하며, 규석 반침이 많으며 큰 기형은 모래 섞인 거친 내화토 비집을 받치고 있다. 무늬는 음각·양각·투각기법과 함께 상감기법이 널리 사용되었다. 또한 굽 바닥에 장인들의 이름으로 판단되는 '孝文', '孝久', '照淸', '義藏', '敦章', '應志' 등의 명문이 음각되어 있어 생산지를 확인해 주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부안지역 청자는 무문과 음각, 양각, 투각, 상형, 퇴화 등의 시문기법으로 고려청자를 대표하는 연화문과 국화문, 모란문, 초화문, 하엽문, 운학문, 앵무문, 파어문, 포류수금문 등의 무늬를 다양하고 화려하게 시문하였다. 기종 또한 발과 대접, 완, 접시, 잔, 잔탁, 배, 반, 합, 병, 호, 항, 연적, 장고, 화분, 향로, 향완, 촛대받침, 의자 등 매우 다양하다. 번조방법은 양질청자의 경우 규석을 받쳐 갑번하였으며, 중·하품청자는 모래 섞인 거친 내화토 비집을 이용하여 단독 또는 포개 번조하였다. 🇰🇷



군산 비안도

해저유적

群山 飛雁島 海底遺蹟



군산 비안도 해저유적은 2002년 4월 17일 ~ 4월 23일까지 국립해양유물 전시관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소라잡이하던 어부의 신고로 발굴된 비안도 해저유적은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개펄층이 4~5m 씩겨 나가면서 묻혀 있던

유물들이 노출되어 알려지게 되었다. 출토유물은 청자와 목재편 등 3,000여점인데 유물의 대부분은 청자이다.

청자의 기종은 접시류와 대접류가 주종을 이루며 발과 완, 잔, 뚜껑도 확인되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기형은 통형잔과 합으로 상감기법으로 문양을 시문한 합이 특징적이다. 무늬는 상감기법의 국화문과 음·양각의 연판문과 앵무문, 모란문 등이 확인된다.



번조는 모래 섞인 거친 내화도 비침과 규석받침을 받쳐 실시하였다. 거친 내화도 비침은 백색 내화도 비침에 이어 12세기 후반 새롭게 나타나는 번법이다. 또한 규석받침도 12세기 전반부터 양질청자의 제작에 사용하는 것으로, 가는 규석받침이 좀더 커진 규석받침으로 바뀌고 있어 시기적 변화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비안도 출토 청자의 생산시기는 12세기 후반을 상한으로 설정할 수 있다.



군산 비안도 해저유적 출토 청자는 비안도 인근의 부안 유천리 요지 제7구역 27호와 28호 가마터에서 출토된 것들과 기형과 문양, 제작기법이 유사한데 특히, 앵무새와 모란문의 대접과 접시, 연판문 통형잔 등은 매우 비슷하다. 따라서 비안도 청자는 12세기 후반 부안 유천리 7구역 가마터에서 생산되어 개경의 왕실과 관아 등에 공납하기 위해 부안의 줄포항을 출발하여 운반하던 중에 침몰한 것으로 추정된다. 🇰🇷



49

청자음각앵무문대접

靑瓷陰刻鸚鵡文大椀

Celadon Bowl with Incised Parrot design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고려 12세기 | 높이 7.6 | 입 지름 16.9 | 굽 지름 5.8

내저원각식 대접으로 외 측면이 완만한 사선형으로 바라진 형태로 굽지름 보다 작은 내저원각이 있다. 문양은 내면에만 있는데 입술부 내부에 음각선문이 희미하게 둘러져 있고, 내부에 음각기법으로 앵무새 2마리가 약하게 시문되어 있다. 유색은 담청황갈색을 띠고 굽은 내경되었으며 굽 바닥에 4곳의 내화토 비짐을 받쳐 구웠다. 🇰🇷



50

청자음각앵무문완

靑瓷陰刻鸚鵡文碗

Celadon Bowl with Incised Parrot design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고려 12세기 | 높이 3.5 | 입 지름 8.0 | 굽 지름 3.4

내저원각식 완으로 측면에서 구연까지 직사선형으로 바라진 형태이다. 굽 지름보다 작은 내저원각이 있고 빙렬(氷裂, 식은테)이 있다. 구연 내부에 선문을 돌리고 내측면은 음각기법으로 3마리 앵무새가 간략하게 시문되어 있다. 유색은 담청 황갈색이다. 굽은 낮게 내경되었으며 굽 바닥 3곳에 내화토 비짐을 받쳐 구웠다. 🇰🇷



51

청자양각연판문통형잔

靑瓷陽刻蓮瓣文筒形盞

Celadon Cup with Raised Lotus Petal design pattern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고려 12세기 | 높이 9.6 | 입 지름 11.5 | 굽 지름 6.6

그릇 측면이 직각으로 선 원통형 잔이다. 문양은 외 측면에만 새겼는데 연판문을 음각으로 새긴 다음 구연 외부를 양각으로 깎아냈다. 내면은 곡선을 이루며 외 측면은 굽 부분에서 완만한 각으로 꺾여 반듯하게 구연으로 올라온다. 유색은 회청색이고 다리굽은 낮게 내경되었으며 굽 바닥 5곳에 내화토 비짐을 받쳐 구웠다. 🇰🇷



52

청자음각뇌문잔

靑瓷陰刻雷門盞

Celadon Cup with Incised lightning design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고려 12세기 | 높이 5.8 | 입 지름 7.5 | 굽 지름 4.0

내저곡선형이며 외 측면은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구경이 넓어 전체적으로 약간 퍼진 형태이다. 문양은 구연 외부에 음각기법으로 뇌문을 시문하였다. 유색은 담녹색이고 굽은 낮게 내경 되었으며, 굽 바닥 3곳에 내화토 비짐을 받쳐 구웠다. 유물의 제작 과정에서 구연부가 변형되었다. 🇰🇷



53

청자음각앵무문접시

靑瓷陰刻鸚鵡文碟匙

Celadon Dish with Incised Parrot design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고려 12세기 | 높이 5.1 | 입 지름 15.2 | 굽 지름 5.7

내저원각식 접시로 외 측면은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있다. 문양은 내저면 저부에서 입술로 올라가는 부분에 선문으로 희미하게 돌렸으며, 내저에 한 마리의 앵무새를 음각기법으로 시문하였는데, 앵무새가 활짝 날개를 펴고 날으는 형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유색은 담녹색이고 굽은 내경되었으며, 굽 바닥 4곳에 내화토 비짐을 받쳐 구웠다. 🇰🇷



54

청자압출양각연당초문접시

靑瓷壓出陽刻蓮唐草文楨匙

Celadon Dish with Pressed and Raised Lotus Vine design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고려 12세기 | 높이 4.0 | 입 지름 13.6 | 굽 지름 5.3

연꽃과 당초문이 내측에 양각으로 시문된 접시로 외저부는 각지게 깎여 올라가고, 측면에서 입술까지 사선형으로 바라진 형태이다. 내측면에 압출 양각 기법으로 연화당초문이 시문되어 있고 내저부에 음각선문의 흔적이 있다. 유색은 회청색이고 굽은 내경되었으며 굽 바닥에 규석받침과 내화토 비짐을 받쳐 구웠다. 🇰🇷



55

청자압출양각모란문접시

靑瓷壓出陽刻牡丹文碟匙

Celadon Dish with Pressed and Raised Peony design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고려 12세기 | 높이 5.1 | 입 지름 16.5 | 굽 지름 5.8

모란꽃이 내측에 양각으로 시문된 접시로 외저부는 각지게 꺾여 올라가고, 측면에서 입술까지 사선형으로 바라진 형태이다. 입술 내부에 선문 한 줄이 있고 내저면에서 내측면까지 압출 양각 기법으로 모란꽃 한 송이가 섬세하고 화려하게 시문되어 있다. 유색은 절반이 청자 고유의 비색을 띄지만 나머지는 담녹색이며 빙렬(氷裂, 식은테)이 있다. 굽은 내경되었으며 굽 바닥 4곳에 내화토 비짐을 받쳐 구웠다. 🇰🇷





56

청자상감국화문합

靑瓷象嵌菊花文盒

Celadon Case with Inlaid Chrysanthemum design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고려 12세기 | 높이 3.5 | 입 지름 8.0 | 굽 지름 3.4

뚜껑 상면이 평평한 모양의 합으로 둥근 원을 이루고 있으며 외곽으로 가면서 각이 지고 다시 꺾이면서 합신과 연결되는 부분은 반듯하게 직선을 이룬다. 문양은 뚜껑 상면에 상감기법으로 국화를 시문하였는데 옅은 흑상감으로 표현하였고, 꽃은 백상감으로 활짝 핀 꽃을 잘 표현하였다. 유색은 담녹색의 청자유가 얇게 시유되어 있고 광택이 좋다. 뚜껑과 합신을 연결하는 부분에 6개의 내화토 비짐을 받쳐 구웠는데, 번조상태로 있어 뚜껑이 열리지 않는다. 굽은 낮게 내경하였으며 굽 바닥 3곳에 규석을 받쳐 구웠다. 🇰🇷



유물 목록



01
청자방형대
靑瓷方形臺
Celadon Square Stand
국립광주박물관 | 고려 12세기 | 높이 7.4 |
가로 16.9 | 세로 17.4



08
청자상감국류문병
靑瓷象嵌菊柳文瓶
Celadon Bottle with Inlaid Willow, Chrysanthemum
and Lotus design
국립광주박물관 | 고려 14세기 | 높이 32.0 |
입 지름 9.4 | 굽 지름 12.7



02
청자상감모란문정병
靑瓷象嵌牡丹文淨瓶
Celadon Kundika with Inlaid Peony design
강진청자박물관 | 고려 13세기 | 높이 41.1 |
주구 입 지름 3.5 | 몸체 지름 14.5 | 굽 지름 9.4



09
청자상감유로수금문병
靑瓷象嵌柳蘆水禽文瓶
Celadon Bottle with Inlaid Willow, Reed, Lotus,
Bird design
강진청자박물관 | 고려 14세기 | 높이 35.3 |
입 지름 8.4 | 굽 지름 11.0



03
청자음각모란문매병
靑瓷陰刻牡丹文梅瓶
Celadon Meiping Vase with Incised Peony design
강진청자박물관 | 고려 12~13세기 | 높이 40.0 |
입 지름 6.0 | 굽 지름 15.0



10
청자사이호
靑瓷四耳壺
Celadon Four Handles Jar
강진청자박물관 | 고려 12세기 | 높이 35.0 |
입 지름 12.7 | 굽 지름 10.7



04
청자상감운학문매병
靑瓷象嵌雲鶴文梅瓶
Celadon Meiping Vase with Inlaid Cloud and Crane
design
강진청자박물관 | 고려 13세기 | 높이 33.1 |
입 지름 6.0 | 굽 지름 11.8



11
청자상감매로학접문사이호
靑瓷象嵌梅蘆鶴蝶文四耳壺
Celadon Four Handles Jar with Inlaid Apricot flower,
Reed, Crane and Butterfly design
강진청자박물관 | 고려 13세기 | 높이 23.0 |
입 지름 8.3 | 굽 지름 12.0



05
청자상감연유화접문매병
靑瓷象嵌蓮柳花蝶文梅瓶
Celadon Meiping Vase with Inlaid Willow
flower and butterfly design
국립광주박물관 | 고려 14세기 | 높이 25.2 |
입 지름 4.3 | 굽 지름 9.4



12
청자상감유연문호
靑瓷象嵌柳蓮文壺
Celadon Jar with Inlaid Willow, Lotus design
국립광주박물관 | 고려 13세기 | 높이 23.5 |
입 지름 9.3 | 굽 지름 11.0



06
청자음각연화문병
靑瓷陰刻蓮花文瓶
Celadon Bottle with Incised Lotus design
강진청자박물관 | 고려 12세기 | 높이 32.5 |
입 지름 5.3 | 굽 지름 8.8



13
청자음각연화절지문과형주자·승반
靑瓷陰刻蓮花折枝文瓜形注子·承盤
Celadon Melon Shaped Pitcher with Incised Lotus design
강진청자박물관 | 고려 12세기 | 주자 높이 18.6 |
주자 입 지름 4.3 | 주자 굽 지름 8.7 | 승반 높이 5.1 |
승반 입 지름 18.6 | 승반 굽 지름 9.5



07
청자상감연지문편병
靑瓷象嵌蓮池文扁瓶
Celadon Flat Bottle with Inlaid lotus pond design
국립광주박물관 | 고려 14세기 | 높이 28.4 |
입 지름 8.9 | 굽 지름 9.4



14
청자상감연국모란문과형주자
靑瓷象嵌蓮菊牡丹文瓜形注子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 292호
Celadon Melon Shaped Pitcher with Inlaid Lotus,
Chrysanthemum, Peony design
강진청자박물관 | 고려 13세기 | 총 높이 23.6 |
입 지름 5.0 | 굽 지름 10.0



15
청자퇴화연국문과형주자
 靑瓷堆花蓮菊文瓜形注子
 Celadon Melon Shaped Pitcher with Underglaze Iron-Painted Lotus and Chrysanthemum design
 강진청자박물관 | 고려 13세기 | 총 높이 19.8 |
 입 지름 3.5 | 굽 지름 10.0



22
청자양각연판문대접
 靑瓷陽刻蓮瓣文大椀
 Celadon Bowl with Raised Lotus Petal design pattern
 강진청자박물관 | 고려 12세기 | 높이 5.2 |
 입 지름 16.6 | 굽 지름 6.6



16
청자상감연화절지문과형주자
 靑瓷象嵌蓮花折枝文瓜形注子
 Celadon Melon Shaped Pitcher with Inlaid Lotus design
 강진청자박물관 | 고려 13세기 | 총 높이 18.4 |
 입 지름 3.9 | 굽 지름 9.9



23
청자음각앵무문대접
 靑瓷陰刻鸚鵡文大椀
 Celadon Bowl with Incised Parrot design
 강진청자박물관 | 고려 12세기 | 높이 5.3 |
 입 지름 10.7 | 굽 지름 6.5



17
청자상감운학국화문개합
 靑瓷象嵌雲鶴菊花文蓋盒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 293호
 Celadon Bowl, Lid and stand with Inlaid Cloud, Crane, Chrysanthemum design
 강진청자박물관 | 고려 14세기 | 총 높이 18.0 |
 뚜껑입 지름 18.4 | 발입 지름 17.4 | 받침 입 지름 16.1 | 발 굽 지름 6.3 | 받침 굽 지름 6.5



24
청자상감모란문대접
 靑瓷象嵌牡丹文大椀
 Celadon Bowl with Inlaid Peony design
 강진청자박물관 | 고려 13세기 | 높이 5.6 |
 입 지름 19.2 | 굽 지름 6.1



18
청자상감'왕'명탁잔
 靑瓷象嵌'王'銘蓋托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 294호
 Celadon Cup Stand with Inlaid Inscription of 'Wang' (King)
 강진청자박물관 | 고려 13세기 | 높이 7.1 |
 지름 13.8 | 굽 지름 7.7



25
청자철채양각동자문완
 靑瓷鐵彩陽刻童子文碗
 Celadon Bowl with Underglaze Iron-Painted, Pressed and Raised Child design
 강진청자박물관 | 고려 12세기 | 높이 6.2 |
 입 지름 14.2 | 굽 지름 4.1



19
청자상감국화문탁잔
 靑瓷象嵌牡丹菊花文托盞
 Celadon Cup and Stand with Inlaid Chrysanthemum design
 강진청자박물관 | 고려 13세기 | 잔 높이 4.8 |
 받침 높이 2.9 | 잔 입 지름 4.8 | 잔 굽 지름 3.4 |
 받침 굽 지름 8.4



26
청자상감국화문'삼관'명잔
 靑瓷象嵌菊花文'三官'銘盞
 Celadon Cup with Inlaid Inscription of 'Sam-Gwan' and Chrysanthemum design
 강진청자박물관 | 고려 13세기 | 높이 6.8 |
 입 지름 10.3 | 굽 지름 3.4



20
청자화형발
 靑瓷花形鉢
 Celadon Flower Shaped Bowl
 국립광주박물관 | 고려 12세기 | 높이 6.1 |
 입지름 18.2



27
청자화형접시
 靑瓷花形模匙
 Celadon Flower Shaped Dish
 국립광주박물관 | 고려 12세기 | 높이 2.0 |
 입 지름 14.7 | 굽 지름 4.8



21
청자음각파어문화형발
 靑瓷陰刻波魚文花形鉢
 Celadon Flower Shaped Dish with Inlaid Chrysanthemum design
 국립광주박물관 | 고려 12세기 | 높이 6.6 |
 입 지름 17.4 | 굽 지름 5.1



28
청자상감국화문능화형접시
 靑瓷象嵌菊花文菱花形模匙
 Celadon Flower Shaped Dish with Inlaid Chrysanthemum design
 강진청자박물관 | 고려 13세기 | 높이 2.5 |
 입 지름 22.7 | 굽 지름 7.2 / 18.5



29
청자상감국화문합
靑瓷象嵌菊花文盒
Celadon Case with Inlaid Chrysanthemum design
국립청자박물관 | 고려 14세기 | 총 높이 3.3 |
입 지름 7.6 | 굽 지름 4.6 |



36
청자상감유연수금문대접
靑瓷象嵌柳蓮水禽文大椀
Celadon Bowl with Inlaid Willow, Lotus and Bird design
국립광주박물관 | 고려 14세기 | 높이 5.4 |
입 지름 18.3 | 굽 지름 5.9 |



30
청자음각모란당초문화형대접
靑瓷象嵌牡丹文大椀
Celadon Flower Shaped Bowl with Incised Peony and
Vine design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고려 12세기 | 높이 6.8 |
입 지름 19.3 | 굽 지름 5.1 |



37
청자상감운문잔
靑瓷象嵌雲文盞
Celadon Cup with Inlaid Cloud design
국립광주박물관 | 고려 14세기 | 높이 5.1 |
입 지름 9.2 | 굽 지름 4.9 |



31
청자음각모란당초문발우
靑瓷陰刻牡丹文鉢盂
Celadon Bowl with Incised Peony and Vine design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고려 12세기 | 높이 6.1 |
입 지름 18.4 | 굽 지름 5.2 | 높이 4.8 | 입 지름 17.1 |
굽 지름 4.6 | 높이 3.5 | 입 지름 15.2 | 굽 지름 4.0 |



38
청자대접
靑瓷大椀
Celadon Bowl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고려 11세기 | 높이 7.8 |
입 지름 15.3 | 굽 지름 6.9 |



32
청자음각파도문완
靑瓷陰刻波濤文碗
Celadon Bowl with Incised Wave design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고려 12세기 | 높이 5.0 |
입 지름 15.3 | 굽 지름 3.4 |



39
청자덮개
靑瓷蓋
Celadon Lid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고려 11세기 | 높이 5.3 |
입 지름 17.3 | 굽 지름 7.5 |



33
청자양각연판문접시
靑瓷陽刻蓮瓣文模匙
Celadon Dish with Raised Lotus Petal design pattern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고려 12세기 | 높이 4.2 |
입 지름 15.4 | 굽 지름 5.0 |



40
청자완
靑瓷碗
Celadon Bowl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고려 11세기 | 높이 5.7 |
입 지름 13.7 | 굽 지름 4.7 |



34
청자음각선문합
靑瓷陰刻線文盒
Celadon Case with Incised Line design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고려 12세기 |
총 높이 4.3 | 무경 높이 4.4 | 입 지름 6.4 |
합선 높이 3.1 | 입 지름 5.5 | 굽 지름 3.2 |



41
청자소접시
靑瓷小模匙
Celadon Small Dish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고려 11세기 | 높이 4.4 |
입 지름 11.2 | 굽 지름 5.0 |



35
청자상감운봉문대접
靑瓷象嵌雲鳳文大椀
Celadon Bowl with Inlaid Cloud and Phoenix design
국립광주박물관 | 고려 14세기 | 높이 8.7 |
입 지름 19.8 | 굽 지름 5.9 |



42
청자평접시
靑瓷平模匙
Celadon Flat Dish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고려 11세기 | 높이 3.7 |
입 지름 14.4 | 굽 지름 6.1 |



43
청자화형접시
靑瓷花形模匙
Celadon Flower Shaped Dish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고려 11세기 | 높이 4.2 |
입 지름 12.2 | 굽 지름 5.5



50
청자음각앵무문완
靑瓷陰刻鸚鵡文碗
Celadon Bowl with Incised Parrot design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고려 12세기 | 높이 3.5 |
입 지름 8.0 | 굽 지름 3.4



44
청자유병
靑瓷油瓶
Celadon Oil Bottle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고려 11세기 | 높이 11.0 |
입 지름 4.6 | 굽 지름 5.3



51
청자양각연판문통형잔
靑瓷陽刻蓮瓣文筒形盞
Celadon Cup with Raised Lotus Petal design pattern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고려 12세기 | 높이 9.6 |
입 지름 11.5 | 굽 지름 6.6



45
청자광구병
靑瓷廣口瓶
Celadon Bottle
국립광주박물관 | 고려 11세기 | 높이 28.4 |
입 지름 8.7 | 굽 지름 8.6



52
청자음각뇌문잔
靑瓷陰刻雷門盞
Celadon Cup with Incised lightning design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고려 12세기 | 높이 5.8 |
입 지름 7.5 | 굽 지름 4.0



46
청자철화보상화문매병
靑瓷鐵畫寶相華文梅瓶
Celadon Meiping Vase with Underglaze Iron Painted
Bosang-hwa design
국립광주박물관 | 고려 11세기 | 높이 25.1 |
입 지름 6.1 | 굽 지름 8.9



53
청자음각앵무문접시
靑瓷陰刻鸚鵡文模匙
Celadon Dish with Incised Parrot design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고려 12세기 | 높이 5.1 |
입 지름 15.2 | 굽 지름 5.7



47
청자광구편병
靑瓷廣口扁瓶
Celadon Flat Bottle
국립광주박물관 | 고려 11세기 | 높이 25.7 |
입 지름 8.8 | 굽 지름 10.7



54
청자압출양각연당초문접시
靑瓷壓出陽刻蓮唐草文模匙
Celadon Dish with Pressed and Raised Lotus Vine
design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고려 12세기 | 높이 4.0 |
입 지름 13.6 | 굽 지름 5.3



48
청자대접
靑瓷大模
Celadon Bowl
국립광주박물관 | 고려 11세기 | 높이 5.9 |
입 지름 16.7 | 굽 지름 6.9



55
청자압출양각모란문접시
靑瓷壓出陽刻牡丹文模匙
Celadon Dish with Pressed and Peony design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고려 12세기 | 높이 5.1 |
입 지름 16.5 | 굽 지름 5.8



49
청자음각앵무문대접
靑瓷陰刻鸚鵡文大模
Celadon Bowl with Incised Parrot design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고려 12세기 | 높이 7.6 |
입 지름 16.9 | 굽 지름 5.8



56
청자상감국화문합
靑瓷象嵌菊花文盒
Celadon Case with Inlaid Chrysanthemum design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고려 12세기 | 높이 3.5 |
입 지름 8.0 | 굽 지름 3.4

강진청자의 교류와 소통

- 발행 강진청자박물관
전남 강진군 대구면 청자촌길 33(사당리 127)
Tel.(061)430-3752 Fax.(061)430-3739
- 제작 무진주디자인연구소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31-9 KT 빌딩 B1
Tel.(062)233-9235~6 Fax.(062)233-9237
- 인쇄 종로인쇄
광주시 동구 백서로 125번길 7(금동 191-2동)
Tel.(062)227-2139
- 인쇄일 2012년 7월 23일
발행일 2012년 7월 28일

값 20,000원



ISBN 978-89-960064-4-2

©강진청자박물관 2012

Copyright© 2012 Gangjin Celadon Museum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강진청자박물관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담긴 모든 내용 및 자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강진청자박물관의 허가 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무단으로 복사 또는 전재하거나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문의는 강진청자박물관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책은 구입하신 곳에서 교환해 드립니다.

 강진청자박물관

값 20,000원

